



삼성전자, 보급형 신제품으로 ‘폴더블 대중화’ 승부수

플립7 FE·A17 5G·탭 S10 라이트
美 FCC 인증 완료… 현지 9일 언팩

폴더블폰 성장세 둔화 대응전략
가격장벽 낮추며 기기 라인업 확대
신흥시장·교육용태블릿 동시 공략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첫 저가형 폴더블폰의 미국 출시 승인을 받으며 하반기 ‘대중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가 정책으로 성장이 둔화한 폴더블폰 시장에 보급형 라인업을 확대해 점유율을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7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7 FE (모델명 SM-F761U), ▲갤럭시 A17 5 G(SM-A176B), ▲갤럭시 탭 S10 라이

트(SM-X400) 등 3종의 신제품이 모두 FCC 인증을 통과했다.

FCC 승인은 미국 시장 출시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 절차로, 인증 후 통상 1~3개월 내 출시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먼저 인증을 마친 제품은 갤럭시 Z 플립7 FE(플립7 FE)다. 6월 중순 인증을 획득한 플립7 FE는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이는 보급형 폴더블폰으로, 기존 Z 플립6(256GB 기준 148만 5000원)보다 가격이 대폭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립7 FE는 기존 플립폰과 동일한 조개껍데기(클램셸) 모양을 유지하되, 내부 6.7인치 화면과 외부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대신 비용 절감을 위해 화면 주사율을 60Hz로 낮추고, 배터리는 3900mAh,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듀얼 구성으로 단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5일 FCC 인증을 받은 갤럭시 A17 5G는 2025년형 보급형 5G 스마트폰으로, 인도·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25W 고속충전(9V/2.77A), 듀얼 SIM, NFC, Wi-Fi 5 등 기본적인 연결 기능을 갖추고 가성비에 중점을 뒀다.

갤럭시 탭 S10 라이트는 7월 3일 인증을 마쳤다. 삼성의 중급 태블릿 라인업인 탭 S 시리즈의 엔트리급 모델로, 이번에 와이파이 전용 모델(SM-X400)이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셀룰러(LTE/5G) 모델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45W 고속충전, Wi-Fi 6E, 마이크로SD 슬롯, 전면·후면 카메라, S펜, 키보드 연결용 포고핀 등을 갖춘 교육·생산성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는 폴더블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급감

7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광고대가 비어있다. 부동산 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규제 직전 일주일간(6월 20~26일) 거래량이 1629건이던 것에 비해 64.6%(105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백악관 “관세 유예 연장 가능 협상 진척국엔 시간 더 줄 것”

진전 없는 15개국 경고 서한 예정

미국이 관세부과의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제시한 90일간의 유예는 이달 8일(미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한국시간으로는 9일 오후 1시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어쩌면 기한을 넘길 수 있는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판단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시 위원장은 또 “시한이 있고, 거의 (합의에) 가까워진 사안들이 있다”며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ABC뉴스에 출연해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선의로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양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미런 위원장은 “(상대국에 대한) 양보에 있어 진척이 있는 나라는 시한이 연

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실질적 양보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어떤 국가들이 유예 연장의 대상일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내로 무역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나라들에 경고성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 15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뉴저지주에서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가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간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 왔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협상을 해 왔다. 따라서 서한 (발송)을 비롯해 몇 가지 협상의 조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7월9일이나 8월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미국)가 대부분의 나라와 7월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한 아니면 협상”이라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와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갤럭시Z플립7 FE 렌더링.

/노트북테크, 새미그루 등 해외 IT매체

작년 사업 부진에 100만명 ‘폐업 쓰나미’

폐업자 수 역대 최고 기록
소매업·음식업 45% 달해

지난해 국내 폐업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절반이 사업 부진을 폐업의 사유로 들었다.

7월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쳐 폐업한 사업자 수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98만6487명)과 비교해 2만1795명 늘었다. 폐업자 수가 100만 선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1995년 관련 통

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폐업자 수는 2020년 89만5379명, 2021년 88만5173명, 2022년 86만7292명 등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2년째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는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은 사업자가 50만6198명으로 50.2%에 달했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율이 50%를 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래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

인 비율이 높은 소매업(30만639명)과 음식업(15만3017명)에서 대규모의 폐업자가 나왔다. 두 업종에서 발생한 폐업만 전체의 45%에 달한다.

또 서비스업에서 22만4490명의 폐업자가 생겨났고 건설업에서도 4만9584명이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을 했던 사업자 중 폐업한 비율을 뜻하는 폐업률도 9.04%로 전년(9.02%)대비 소폭 늘었다. 특히 소매업(16.78%)과 음식점업(15.82%)의 폐업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4일 개최

/사진 뉴시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부·울·경 광역철도, ‘농공약’ 균형발전 상징”

/사진 뉴시스

▲이준석 “국힘 혁신위 좌초는 만성적 문제… 계엄 단절할 마지막 기회”

▲장성민, 국힘 전당대회 출마기로… “나라와 당 살려야 한다는 생각”

▲부승찬 “윤석열, 불법 전투 개시 혐의… 해당 형벌은 사형”

▲이 대통령, 방미 특사에 김종인 전 민주·국힘 비대위원장 내정

시세차익 10억 서울 ‘로또청약’ 나왔다… 현금 7억 있어야

〈전용면적 84㎡〉

올림픽파크 포레온

3개평형 4세대 분양… 최대 12.9억 84㎡ 실거래가 23.8억으로 뛰어 오는 10일부터 2일간 무순위 청약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오늘부터 총 39가구 청약 진행

신축 공급이 귀한 서울에서 소위 ‘쥬쥬’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특히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3년 전 분양가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로구 고척동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거주자까지 청약이 가능해 서울 입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뀐 규정으로 두 곳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전용면적 39㎡ 1세대, 59㎡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전지원 기자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투시도.

/대우건설

1세대, 84㎡ 2세대 등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결과다.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지자체에 자율권이 있는데 시세차익이 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등은 없지만 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2022년 12월 청약 당시 그대로 적용되면서 타입별로 39㎡A 6억 9440억원, 59㎡A 10억 5190만원, 84㎡E 2층 12억 3600만원, 84㎡E 15층 12억 9330만원이다. 84㎡의 경우 입주 직후인 작년 12월에 23억 8000만 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분양가 대비 10억원 이상

뛰었다. 전세가 올해 4월에 10억 5000만 원에 거래가 된 바 있다. 전용 39㎡는 올해 3월 13억 5212억원에 거래가 됐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할 전망이다. 당첨자 발표 이후 석 달여 만에 잔금 90%를 모두 납입해야 하지만 강화된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6억원이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39가구에 대해 오는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와 84㎡가 각각 19세대, 20세대 등이다.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단지는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총 983세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8월이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 5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13.5대 1로 전 평형이 해당지역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무순위 청약이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피크아웃’ K-조선, 카타르·인도 시장 공략

올해 LNG선 발주수량 8척에 그쳐 내년 카타르에너지 22척 수주 예상
美 LNG 프로젝트에 수주확대 기대
조선 역량 부족 ‘인도 시장’ 정조준

LNG선 운임비가 하락하며 국내 조선업체의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선사들은 발주 지연을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카타르 석유기업 카타르에너지의 3차 발주와 인도 등 신시장 공략이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7만 4000㎥급 LNG운반선의 정기용선료는 하루 2만 523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만 5000㎥급 선형의 평균 스팟 운임도 하루 3462달러까지 하락했다.

올해 LNG선 발주 또한 8척에 그치며 작년 상반기 65척에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발주의 약 70%가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기

대됐던 글로벌 발주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 발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만큼 내년에는 LNG선 발주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카타르에너지가 7월 중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만큼 최소 22척 규모의 LNG선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미국이 LNG 생산 프로젝트 확대에 나서면서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를 중심으로 LNG선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LNG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주요 수출 거점 구축에 나섰다.

미국 신생 에너지 기업인 코어스탈벤드 LNG는 텍사스에 연간 2250만톤 규모의 LNG 액화 및 수출 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또 미국 메이저 에너지 기업

세브론은 루이지애나주 걸프 연안에서 에너지 트랜스퍼가 개발 중인 레이크 찰스 LNG프로젝트 장기공급 계약 규모를 기존 200만톤에서 300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조선사들은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도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약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국 조선역량이 부족해 연간 약 110조원을 선박임대에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도는 자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협력에 나서고 있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 ‘코친조선소’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코친조선소와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인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인도 및 해외 시장에서 선박 수주 기회도 함께 모색할 전략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오가노이드사이언스, 日 기업과 맞손 ‘아톰·오디에이’ 현지진출 발판 마련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동남아시아에 이어 일본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한다.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오가노이드 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글로벌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일본의 의약전문 유통기업 ‘서밋 파마슈티컬 인터내셔널(SPI)’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의약전문 유통기업 SPI와 업무협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 日 총판 파트너

향후 현지시장 시장개척 등 수행키로
동물대체시험·신약개발 등 확대 기대

이번 업무협약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재생치료제 ‘아톰(ATORM)’과 신약평가 플랫폼 ‘오디세이(ODISEI)’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SPI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스미토모(Sumitomo) 그룹 계열의 의약 사업 개발 전문기업이다. 약 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스미토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상사로,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00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에너지, 금속, 운송, 인프라,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약 5조엔(약 35조 원)에 달한다.

SPI는 이러한 스미토모 그룹 내 제약·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스미토모의 자본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 바이오 생태계에서 혁신 기술의 도입과 사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임상·비임상 연구 개발부터 제품 허가,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로벌 바이오 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PI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일본 내 총판 파트너로서, 전반적인 영업 활동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SPI는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시장 개척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SPI에 기술 및 사업 관련 정보,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고, 일본 고객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SPI는 현지 파트너사 발굴, 시장조사, 고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일본 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재생치료제 ‘ATORM-C’의 일본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ODISEI’ 플랫폼을 통한 동물대체시험 및 신약 개발 평가 솔루션의 수요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SPI와의 협력은 일본이라는 선진 바이오 의료 시장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혁신 기술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을 넘어 전략적 사업 파트너십으로 일본 시장에서 정밀의료, 재생치료제, 동물대체시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5월 한국 코스닥 시장 상장을 완료한 데 이어, 독일(Lambda Biologics), 미국, 베트남에 이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로 동물대체시험법 및 글로벌 평가 플랫폼을 확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주요 14국에 대통령 특사단 파견 검토”

대통령실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도”

대통령실이 주요 1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 예년에 비해 파견 국가를 늘렸



다”고 설명했다. 우수석은 “현재 약 14개국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밤미 특사단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석은 밤미 특사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선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후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국가의 특별한 의제를 해

결하기 위한 성격을 띠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특사단을 파견하면 현안과 관련한 여러가지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관세 협상을 위해선 하나의 채널로 움직이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공식·비공식 관계들을 복원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은 김영배·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독일 특사단에 내정됐으며 이들은 이달 말께 독일로 출국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고 통상·관세 문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

육휴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속도… 재정 해법 마련은 ‘뒷짐’

국민연금 구조개혁

연금특위, 4월 이후 논의 중단
與野 사각지대 중점 신규 입법
“재정에 대한 국민 불안 여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 연금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는 지연되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의 제정 이후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법안은 10건이다. 민주당이 7건, 국민의힘이 2건, 조국혁신당이 1건의 법안을 신규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뉴시스

에 주안점을 뒀다. 만 18~27세 청년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18세가 되는 해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대신 납부하고, 이미 소득이 있다면 3개월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납부 예외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일시 중

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유지는 가능하지만, 고용주 부담분도 부담해야 해 부담액이 2배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육아휴직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내도록 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입안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증액을 추진한다. 현행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하위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조국혁신당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현행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을 육군의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확대하고, 기타 이유로 병역 복무가 6개월 이하로 중단됐더라도 복무에 따른 가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구조개혁의 시계는 멈췄다. 여·야는 지난 3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여·야가 동수 참여하는 연금특위를 출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지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중단했고,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에서도 연금개혁은 논의는 없었다. 조기 대선 때문이다.

연금특위 출범 당시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구조개혁 중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추가 개혁 없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6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전환 시점은 2048년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나, 재정안정화와 세대 간 노후소득보장 격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기금의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2060년대 중후반에 기금 소진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제4 인뱅 늦어지나… “인가 순탄치 않을 것”

새 정부, 금융위 등 관련 기관 개편
가계부채 제한… 심사기준 영향

카카오·토스·케이뱅크를 이을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미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가를 승인할 기관의 개편이 끝나지 않은 데다, 새 정부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바에 따라 심사 기준이 추가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은 오는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모델과 혁신성,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고 올해 3월 말 신청을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금감원과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본인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6월에는 예비인가를 취득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본인가가 진행돼야 했지만, 아직 예비인가 심사

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예비인가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정책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위의 금융 정책이 기재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무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심사 기준이 더 꼼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를 늘려 수익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제4인터넷은행은 포용 금융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기존 은행까지 가계부채를 제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 모형과 가능한 중저신용자 대상 범위,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4인터넷은행을 통해 기대했던 자금 공급 부분도 일부 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는 비수도권이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들이 지방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공급할 가능성은 커졌다. 저축은행이 지역 내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비수도권 대출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다음주 금감원에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가 발표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감원 심사와 함께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진행할 것인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심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李 대통령, 유흥식 추기경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외 기관, 韓 잠재성장률 1%대 경고

OECD, 1.9% 추정… 체질개선 시급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1%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 총생산(GDP)변화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2001년 이후 OECD가 추정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기관에서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24~2026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로 2%를 제시했다. 2016~2020년 중 2% 중반에서 다소 낮아진 수치다.

올해 들어 한에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

앙은행(ECB)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약 3%였지만, 지금은 2%보다 낮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평상시 3%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KDI는 이에 더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2040년에는 0% 수준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출생율 반등과 산업 구조 개혁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주요 경제 목표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새 먹거리 발굴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간 잠재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는 점이 과도하다”면서 “생산성 개선과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LG전자, 매출 20.7조·영업이익 6391억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LG전자가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20조7400억원, 영업이익 6391억원의 잠정 실적을 7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46.6% 감소한 수치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강화와 물류비 상승 등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이 실적에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TV·IT 제품 수요 둔화, L

CD 패널 가격 상승, 마케팅비 증가 등 산업 내부 요인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사업별로 보면 생활가전과 전장(VS), 냉난방공조(HVAC) 등 주력 사업은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 특히 전장과 HVAC는 안정적인 기업간 거래(B2B) 수주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지켰다.

반면, TV와 모니터 등을 포함한 MS 사업본부는 수요 둔화와 원가 상승, 마

케팅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사 실적에 부담을 줬다.

LG전자는 하반기 ‘질적 성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반복 수익 구조와 높은 수익성을 갖춘 구독과 웹(web)OS 같은 비하드웨어(Non-HW)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자사물(LGE.COM)을 통한 소비자직접판매(D2C)로 브랜드 경쟁력과 수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달 말 실적설명회를 열고 순이익과 각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스낵 글로벌 매출 ‘1조 시대’… 현지 특화·공장증설 가속

에 K-푸드, 국경을 넘다

② 인도·중국

국내 대표 제과기업 오리온과 롯데웰푸드가 중국과 인도 시장을 양축으로 삼아 글로벌 스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과자류 수출액은 7억600만 달러(약 1조20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K스낵의 ‘1조원 수출 시대’를 상징하는 기록이다. 과자류 수출액은 2018년 4억3140만 달러에서 2020년 팬데믹 여파로 4억1200만 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2021년 4억6600만 달러, 2022년 6억5640만 달러로 반등하며 5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오리온, 中매출 국내보다 많아
러 공장 2배 증설로 생산 확대
초코파이, 효자 제품으로 성장
현지 전용 제품군 등 지속 강화

◆오리온, 中 매출 5년 연속 1조 돌파

오리온은 1995년 중국에 첫 진출한 이후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 제품인 ‘오!감자’는 토마토 맛, 스테이크 맛 등 중국 전용 제품군으로 단일 품목만으로 약 2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초코파이’와 함께 중국 내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오리온은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총 1조2701억 원(해외 매출 비중의 41%)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매출 1조 976억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 법인 외에도 오리온은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에서 11개



①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에서 해외 유튜브 토퍼 길드가 한국 ‘빼빼로’ 쇼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다.
② 러시아 마트에 오리온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③ 롯데웰푸드 ‘크런치’ 인도 옥외광고.

/롯데웰푸드·오리온

의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65%를 넘어섰다.

중국 제과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31년 중국 제과 시장 규모는 4072억 위안(한화 약 79조1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다. 올 1~5월 러시아 매출은 1235억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급증했다. 특히 초코파이 매출 비중이 전체의 82%에 달하며 실적을 견인 중이다.

러시아트베리에 위치한 생산공장 가동률이 140%를 넘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오리온은 약 24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증설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공장 부지에 16개 생산라인을 추가 설치하며, 생산 품목도 초코파이 외 제과·젤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생

산 규모는 현재의 2배인 약 75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웰푸드, 인도서 빙과·제과 모두 성공적

인도에서는 롯데웰푸드가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약 700억 원을 투입한 푸네 신공장을 가동해 여름 빙과 수요를 겨냥한 현지 전략 제품 ‘크런치바’를 출시했다. 이는 한국의 ‘돼지바’를 현지화한

제품으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100만 개 판매, 약 10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

롯데웰푸드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빼빼로다. 현재 57개국에 수출 중인 빼빼로는 2020년 294억 원에서 2023년 701억 원으로 2.4배 이상 성장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하리아나 지역에 330억 원을 들여 첫 해외 빼빼로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며,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인도 공장 가동
빼빼로 첫 해외 생산라인 구축
빙과·제과 양축 공략 본격화
2032년 1조 매출 목표 시동

또한 인도 내 자회사인 롯데 인디아와 하브모어의 합병도 완료해 전국 단위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롯데 인디아는 남부(첸나이), 북부(하리아나)를, 하브모어는 서부(구자라트)를 기반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통합으로 물류·생산 시너지가 강화됐다. 롯데는 이를 기반으로 2032년까지 인도 내 연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롯데그룹은 빼빼로를 한국과 일본의 협업 브랜드로 ‘글로벌 톱10’, ‘아시아 넘버원’ 제과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빼빼로를 연 매출 1조 원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직접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제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국, 인도, 등 거대 시장에서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제품 현지화를 강화하는 기업이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배터리, 캐즘·IRA 악재 속 돌파구… ESS로 반전 노린다

LG엔솔, 유럽 ESS 대형 수주 박차
SK온, 美 공장 가동률 ↑ 적자 축소
삼성SDI, 테스볼트 ESS 공급 확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G엔솔과 SK온의 경우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는 반면 삼성SDI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는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실적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52.0% 증가했다. 직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매출은 11.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4%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보였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법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다. LG에너지솔루션의 2025년 상반기 누계 실적은 매출액 11조8304억원, 영업이익 8669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SK온 역시 미국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적자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SK온의 2분기 영업손실은 356억원

수준으로 전 분기(2993억원) 대비 적자 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SDI의 2분기 실적컨센서스는 매출 3조5379억원, 영업손실 1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5%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할 것이란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실적개

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외 등 복합 악재로 기대치를 밀돌고 있다.

이에 배터리업계는 하반기 ESS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해 시장 반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ESS는 에너지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로, 미국·유럽 정부 정책과 맞물려 성장 잠재력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85기가와트시(GWh)에서 오는 2035년 약 1232GWh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 1GWh 규모, 6000억원 수준의 ESS 프로젝트로 향후 후속 협력까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중국 3위 완성차 기업인 체리자동차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8GWh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

면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SDI는 독일의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 제조업체인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먼저 SBB?1.0을 공급하고 오는 2026년 2분기부터는 SBB 1.5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SK온은 지난해 ESS 사업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했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수주 성과를 창출해 실적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SK온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배터리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대형 ESS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해 하반기 실적 반전을 노릴 것”이라며 “스마트 ESS 기술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 현지 생산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캐즘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與野, ‘대선 공통공약’ 입법 속도… 이견 법안도 협치 나서

與野 정책위의장·수석부의장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
200여건 공통공약, 국정과제 반영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상견례를 했다.

이들은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동을 거친 후 여야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을 추려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문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추산으로 (공통 공약이) 200여건 되고, 국민의힘 추산으로 110여건 되는데 실무선에서 만나 추진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 /뉴시스

앞으로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지난해 4·10 총선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AI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100여건의 공통공약을 정리해 입법한 것을 모

델 삼아 서로 이견을 좁혀갈 예정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년 총선 당시 김상훈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공통 공약을 서로 추려내 신속 입법했다”며 “AI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100여건이 넘는 입법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 정책위의장이 6월 10일에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낸 공약을 입법 추진하자고 했고, 민생 공

통공약 추진 협의회 재가동을 제안했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

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면서도 국회의 거대 여당”이라며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다.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 이후 역시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시즌2를 진행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자체 스크린해 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더라. 입법을 필요한 것을 추려보니 80여건이 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모든 야당께 공약을 전달해주면 공통 공약을 추려서 우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비슷한 공통 공약 규모가 확인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월 10일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운송비용 등 확대 등은 국민의힘안이 민주당안보다 더 전향적이라고 고백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당대표 도전하겠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 거부”
지도부서 安 인적쇄신안 수용 안 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수락 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제안한 인적쇄신안을 지도부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이후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 인선안이 합의 되기 전에 최소한 두



분의 인적쇄신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번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제가 혁신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적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가) 실패하고 우리 당에 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 대상이 되는 두 명의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답했다.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이나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안 의원의 대답을 종합해봤을 때, 안 의원이 겨냥한 인적쇄신 대상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 논란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일 것으로 추측된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에 강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혁신위가 먼저 신뢰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출당이나 추후 총선 불출마 등 구체적인 인적쇄신 방법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최소한의 인적쇄신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며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의 기자회견 바로 전, 비대위는 안철수 의원과 합의한 안이라며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

의힘 원내대변인은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혁신위원으로 인선됐으며 1명은 추후에 밝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비대위가 합의되지 않은 안을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니다. 분류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현역 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비(非)원외당협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 합의해준 바 없다”며 “종게 말씀드리다면 제가 합의한 걸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성 공약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 의원은 송 비대위원장의 혁신 의지에 대해 “보도와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와 경북의 우리 당 지지를 자체도 절반 수준을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론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위원장께서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내용에 대해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누가 책임져야 할지 백서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라 혁신위와 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에 “국정집행 잘 챙겨달라”

첫 주례회동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안전, 질서, 민생 분야에서 국정 집행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 대통령님과 김민석 신임 총리 간의 오찬 회동이 있었다”면서 “(이대통령은)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등 분야에서 유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며 “예컨대 산업 재해, 인재(人災)로 불리는 자연 재해, 교통사고 등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업무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상황 점검, 기타 대통

령 지시·위임 사항을 국무총리의 주 업무로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후 인재 유출 문제, 의정 갈등,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사항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 수석은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해 AI(인공지능)·바이오 등 분야의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대통령실, 청년 삶 개선할 청년담당관 채용

정책제안서 발표·면접으로 심사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 수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 관련 업무를 맡는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청년담당관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는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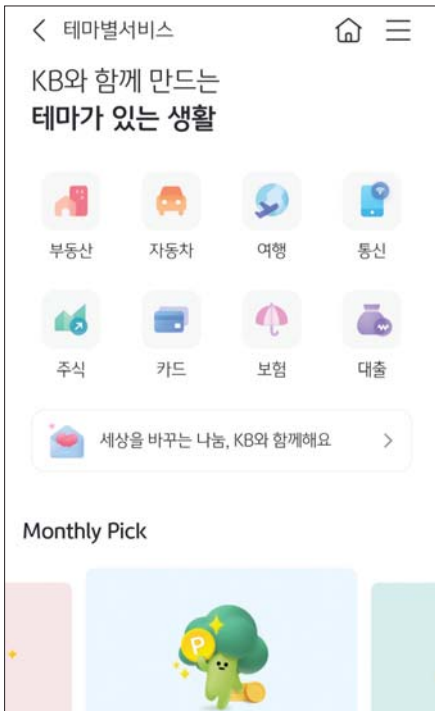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모바일뱅킹 슈퍼앱 변신 가속… 토스·카카오페이에 도전장

송금·결제 넘어 재테크까지
은행 앱, 계열 금융 통합 확대
토스·카카오페이와 격돌 본격화
비대면 주류 속 서비스 다변화

금융권의 ‘슈퍼 앱’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계좌 개설, 송금, 결제 등 기존 앱 기능 뿐만 아니라 증권·가상자산 등 재테크, 보험,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 중이다. 전통적 강자인 간편 송금 앱에 이어 은행 앱도 ‘슈퍼 앱’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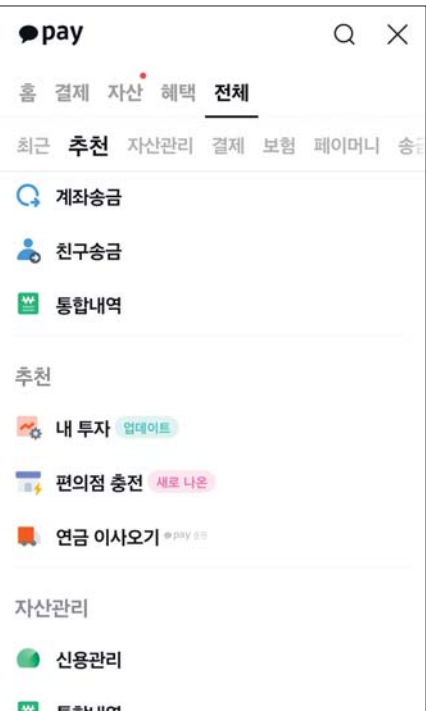
7일 각 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모바일 뱅킹 앱은 1분기 이용자 수에서 일제히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성장을 기록했다.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를 공개한 국민은행(KB스타뱅킹)과 신한은행(신한SOL뱅크)은 각각 105만명(8.63%), 14만명(1.45%)의 MAU 성장을 기록했고, 누적 가입자를 공개한 하나은행(하나원큐)과 우리은행(우리W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KB스타뱅킹' 내에서 제공 중인 각종 서비스(왼쪽)와 메신저 앱 '카카오톡'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페이지. /각사

ON뱅크)은 가입자 수가 110만명(6.9%), 75만명(3.56%) 늘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주류가 된 가운데, 각 은행이 자사 모바일 뱅킹 앱(App)을 그룹 계열사의 금융 거래 기능을 통합한 ‘슈퍼 앱’으로 재편하며 이용자



가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이다. ‘슈퍼 앱’은 송금, 결제 등 금융 거래 뿐만 아니라 상품 비교, 재테크 정보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슈퍼 앱’ 분야의 강자로는 토

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송금 앱’이 꼽힌다. 송금 앱은 인증 절차 없이도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금융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을 끌어 들였다. 이어 상품 비교 및 갈아타기, 신용등급 조회, 가계부 등 각종 편의 기능을 앞세워 고객 충성도도 확보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토스’는 약 3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카카오톡과 연계한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4000만명을 넘겼다. 결제 서비스로 시작한 ‘네이버페이(N페이)’도 3000만명 이상의 누적 고객을 확보했다. 3개 앱을 합산한 누적 이용자는 1억 명에 달한다. 국민 대다수는 송금 앱 사용 경험이 있고, 평균 2개 이상의 송금 앱을 이용 중인 셈이다.

다수의 금융 앱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각 송금 앱은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 토스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생활·커뮤니티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는 계열사 앱 카카오톡과 연계한 편의성을, 네이버페이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한 각종 할인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후발 주자인 은행 앱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 내에서 카드 발급 및 관리, 공모주 청약, 보험 진단 등 계열사의 금융 거래를 통합해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크 앱도 지난달부터 앱 내에서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는 내년 초를 목표로 리뉴얼에 돌입했다. 그룹 계열사 앱을 하나의 앱인 ‘뉴슈퍼SOL’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도 카드, 증권, 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 거래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 중이며,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주거래 은행의 개념이 흐려지고, 여러 금융 앱을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단순한 입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 자산관리사 출범… 부실 해소 시험대

300억 자본금으로 NPL 매입 착수
수도권 PF 매각·수수료 인하 관련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오는 8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부실 해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 NPL(부실채권)을 매입해 건전성을 꾀한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는 중앙회 주도로 설립한 부실채권 관리 회사다. 지난 5월 임직원 구성을 마쳤으며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복지회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이종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관리본부 담당 상무가 자산관리회사의 지휘봉을 잡는다. 이어 중앙회 임원 4명이 추가로 이종성 상무와 손발을 맞출 예

정이다. 앞서 이 상무는 중앙회 공제지원본부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아직까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털어낼 하반기 부실채권 규모는 미지수다. 내부적으로 매입 상한선을 결정했지만 일선 금고의 매각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는 중앙회가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해 출범한다. 그간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일선 금고의 부실채권을 매입했지만, 소화량이 충분치 않다는 내부 의견이 확산하면서 추가로 자회사를 신설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출범을 앞두고 채권을 매각해야하는 당사자인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목이 집중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부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일선 금고에서는 기존 MCI대부보다 수수료율

을 낮춰 채권을 매입해야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운영하던 MCI대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인 MG신용정보의 자회사다. 채권을 매입할 때 수수료율을 조정해 금고의 부담을 낮추고 싶더라도 MG신용정보와 별도의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임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수료율은 통상 채권 매입 가격의 1%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장들 입장에서선 수수료율을 0.1%포인트(p)라도 낮추고 싶은 심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일선 금고에서도 매각 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수도권 사업장 매각 유도 또한 요구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수도권 PF 사업장의 채권은 정상회수도 가능할 것이란 심리가 작용하면서다. 사업

초기에는 금고 자체적으로 회수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장 위주의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내 부실 해소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자구책이 필요한 셈이다.

중앙회는 구체적인 MCI대부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매입 성향을 두건 사업성이 떨어지는 채권의 경우 보수적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가치 평가를 높여 일선 금고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보다 수수료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가용능력과 자산규모는 공개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금고의 부실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응답자 49% “상승”
전세·월세도 오를것

“핵심지 아파트가격 상승 요인”

올 하반기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7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6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상승 전망은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고, 하락 응답은 12%p 하락한 13%에 그쳤다. 전세(47.7%)와 월세(50.4%) 가격 전망도 상승 응답이 하락 응답보다 각각 4.4배, 8.2배 많았다.

상승 전망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2.7%는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3.6%) ▲정부의 규제 개선 전망(9.8%) ▲금매위주 실수요 유입(9.6%) ▲서울 도심 공급부족 심화(9.1%)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반면 가격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들은 ‘대출 규제에 의한 매수세 약화’(34.2%)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25.2%) ▲금리 부담(7.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7.3%)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3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부족(18.8%)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8.6%) 등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제시됐다.

/전지원 기자 jjw13@

정상혁 “차별화 된 금융솔루션으로 선택 받는 은행 되자”

(신한은행장)



정상혁 은행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창립 43주년 기념식
“지속가능 일류 은행으로 도약”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이 되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7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1982년 7월 7일 창립한 신한은행은 설립 첫째 총수신금액이 1080억원이었지만 현재 총수신금액은 6월 기준 355조473억원에 달한다. 점포수 역시 창립

첫째 8개에서 현재 739개로 늘었다.

이날 정 행장은 “신한은행은 창립 이후 ‘금융 보국’의 정신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고객 중심의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신전하며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일류 은행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맞아 다양한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10만 좌 한도로 출시한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은 4일 만에 모두 판매가 돼 오늘부터 10만 좌 한도 추가 판매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반기 美 관세폭탄 본격화… 신차출시 등 전동화 전략 시동

현대자동차그룹, OBBBA 대응

이달 중 글로벌 권역별 본부장 회의
2분기부터 수익 부담 가중될 듯

“미국 통상환경 변화 분석 하면서
수익 대응 전략방향 내놓을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를 앞두고 전동화 전략 점검에 돌입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전동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며 글로벌 판매량 방어에 성공했지만 하반기부터 미국발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법률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적용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은 이달 중 정기 글로벌 권역별 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미국 관세 대응 및 신차 출시 계획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공장에

이어 올해 초 미국 현지에 31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공을 들였지만 관세 등의 악재로 경영 썬범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은 현대차그룹이 감내해야한다.

우선 판매량은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89만3152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제네시스 포함)는 10.5% 늘어난 47만6641대, 기아는 7.8% 증가한 41만6511대로 나란히 상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작성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2분기부터 수익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46조 12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도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대비 5.2% 늘어난 29조 25억원으로 나타났다. 합산 매출액은 75조 12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어난 전망이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각각 3조 6320억원, 3조 1449억원이다. 전년 대비 15.1%, 13.7% 하락한 수준이다. 합산 영업이익 역시 14.5% 줄어든 6조 776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달 경영실적 관련 기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미국 통

상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상황을 분석해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대응을 위한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미 ‘패키지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현대차·기아 뿐만 아니라 한국GM도 실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일정부분 부담해야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권오갑, 필리핀 등 동남아 사업장 현장경영

HD현대 회장, 6일간 3개국 방문
대응전략 논의… 임직원들과 소통

권오갑 HD현대 회장(사진)이 동남아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글로벌 현장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권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주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 현장을 직접 찾는 행보다. 권 회장은 사장단 회의 당시 “직접 현장에 자주 나가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현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조선, 정유 등 HD현대의 핵심 사업영역이 집중



된 전략적 거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오갑 회장은 각 지역에서 사업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첫 방문지는 필리핀 수빅조선소다. 권오갑 회장은 직접 야드를 둘러보며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조선소 야드 일부를 임차해 해상풍력 및 선박 건조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영업 전략과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는다. 싱가포르는 정유·물류·해운 산업의 핵심 허브로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

마린솔루션 싱가포르 법인 등이 위치해 있다.

권오갑 회장은 마지막으로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에 위치한 HD현대베트남 조선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HD현대미포의 베트남 자회사인 HD현대베트남조선(HVS)은 1996년 수리·개조 법인에서 출발해 2000년대 후반 신조 사업에 뛰어들어 후 현재까지 200척 넘는 선박을 수주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글로벌 핵심 거점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권오갑 회장은 평소에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주요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경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는 글로벌 완구 브랜드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더 프리미어 5’ 체험 공간을 전국 6개 레고스토어에 순차적으로 연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프로젝터 활용 레고 조립해요”

‘더 프리미어 5’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가 초단조점 프로젝트 ‘더 프리미어 5’를 활용해 레고 브릭을 조립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손가락 터치만으로 설명서를 넘기고 확대해가며 레고를 조립하는 색다른 체험이 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완구 브랜드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더 프리미어 5 체험 공간을 전국 6개 레고스토어에 순차적으로 연다고 7일 밝혔다. 체험존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용 방법은 체험존에서 스마트폰에

‘레고 빌더’ 앱을 실행한 뒤, 해당 화면을 더 프리미어 5를 통해 테이블 위에 투사하면 된다. 사용자는 터치 기능이 적용된 화면을 직접 넘기며 레고 설명서를 따라 조립할 수 있다.

더 프리미어 5는 지난 4월 출시된 가정용프리미엄 프로젝트다. 벽으로부터 약 43cm 거리만 확보하면 최대 100형(인치)의 화면까지 투사할 수 있으며,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스탠드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적외선 기반의 터치 기능도 쓸 수 있어 게임, 그림 그리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重, 8694억 해양생산설비 작업 수주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협약 체결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선주로부터 해상 액화천연가스(LNG)생산설비 예비 작업 계약을 따내 해양플랜트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때 ‘골칫덩이’로 여겨졌던 해양플랜트 사업이 고부가가치 수주 영역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해양생산설비 본 계약 체결 전 예비 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8694억원으로 2024년 매출액의 8.8% 규모다. 해양플랜트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와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이 대표적이다. 해양플랜트는 발주 간격이 길고 공정 난도가 높아 수주 자체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꼽힌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으로 해양생산설

비 분야의 독보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해양 분야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선주와 합의해 지난 2월 18일부터 실제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대 초 해양플랜트 중심 전략을 추진하며 사업 재편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양사업 비중을 4년만에 32%에서 88%까지 끌어올렸으나 복잡한 설계·시공 역량 부족과 국제유가 급락이 겹치며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1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해양플랜트 가격이 상승하며 해양 제품이 상선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신규 발주의 절반 이상인 9건 중 5건을 수주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전경.

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해양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주가 계획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년 1~2기를 수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올들어 LNG운반선 1척, 셔틀탱커 9척, 에탄운반선 2척, 유조선 4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등 운반선 18척과 금번 해양생산설비 계약을 포함 33억 달러를 수주해 수주 목표 98억 달러의 34%를 달성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글로비스, 드론 활용 재고조사 효율화

미국 조지아주 통합물류센터에
상반기 ‘자율비행 드론’ 2대 투입

현대글로비스가 카메라 비전 기술 기반의 ‘자율비행 드론’을 물류센터 재고 관리에 투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뤄냈다고 7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자율비행 드론 2대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안의 통합물류센터(CC)에 투입해 자동차 반조립부품(KD) 재고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자율비행 드론은 자동차 부품 물

류센터 재고 관리를 위한 드론으로 현대글로비스 업무 효율화에 큰 진전을 보여준다. 현대글로비스는 올상반기에 자율비행 드론 2대를 투입해 자동차 반조립부품(KD) 재고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드론 투입 이후 재고 조사 시간은 기존 육안을 통한 조사 때보다 90% 이상 줄었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하면 지상 3.5m 이상에 위치해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물품 재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드론 배터리의 충전과 배터리 교체는 이착륙 시설인 베이스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

/양성운 기자

수입차시장 주도권 경쟁 치열… 고성능 신차·전동화 ‘승부수’

BMW 상반기 수입차시장 판매 1위
완전 변경 1·2시리즈 등 라인업 확대

벤츠 하반기 최대 규모 신차 출시
본사 ‘리테일 오브 퓨처’ 전략 적용

BMW가 올해 상반기 3만8000여 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다. 메르세데스-벤츠는 3만2000여 대로 2위를 기록하며 바짝 추격했지만, 두 브랜드 간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하반기에는 양사가 고성능 신차와 전동화 전략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BMW는 상반기 총 3만828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점유율 27.7%를 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같은 기간 3만2575대(23.5%)를 판매해 2위에 올랐다. BMW는 지난해 상반기 4918대였던 벤츠와의 격차를 올해 5720대로 더 벌리며 우위를 공고히 했다.

차종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1만3554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BMW 5시리즈는 1만2786대를 기



BMW i5 xDrive 40

록했다. BMW는 5시리즈 외에도 X5(3026대), X7(2421대), X3(3280대) 등 고급 SUV 라인업을 앞세워 꾸준한 수요를 이끌었다. 벤츠는 E클래스를 축으로 GLC(4261대), GLE(3061대), G클래스(1870대) 등 주력 SUV 모델이 판매를 뒷받침했다. 특히 G클래스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02.8% 급증하며 벤츠의 럭셔리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양사 간 경쟁은 치열했다. BMW는 i5(828대), iX3

(531대), iX(376대), iX1(319대), i4(236대) 등 다양한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통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 반면 벤츠는 EQE가 412대 판매되며 체면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여파가 여전히 소비자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반기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벤츠는 내년까지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신차를 쏟아낼 계획이다. 신형 CLA, AMG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모델, S클래스 페이스리프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E클래스.

트 등이 대기 중이다. 또 국내에는 본사의 ‘리테일 오브 퓨처(ROF)’ 전략을 적용해 직판제를 본격 도입하며 유통 구조 변화를 시도한다.

BMW는 그룹코리아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한정판 모델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520i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은 출시 1분 만에 계약이 마감됐고, ‘X5M 스포츠 프로’도 5분 만에 완판됐다. 오는 8월에는 완전 변경된 1·2시리즈의 가솔린 및 고성능 버전이 출시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BMW가 폭넓은 라인업과 공격적 물량 공급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면, 벤츠는 럭셔리·전동화 부문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특히 직판제 도입, 가격 정책, 신차 출시 시기 등이 하반기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차 시장의 소비 트렌드가 ‘프리미엄 브랜드 + 전동화’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만큼 양사 간 전략 차별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한경협, 내수 활성화 ‘맞손’

소비 촉진 등 공동 캠페인 추진
노란우산 가입자 휴가장려 이벤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 휴가 장려, 지역 소비 촉진 등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7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 확산 ▲지역 화폐·온누리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중기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진작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별도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83억 원 규모의 국내 휴가 장려 이벤트도 병행한다. 신규 가입자 10만 명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소상공인 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기존 가입자 2만 명에게는 전국 주요 리조트 10곳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추경만큼이나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수 회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제계를 대표하는 양 기관의 협력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전자서비스, AS부문 고객만족도 1위

서비스 품질 우수성, 혁신성 등 최고점

삼성전자서비스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전자제품 AS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 평가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삼성은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7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 혁신성, 전문성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은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국가서비스대상’,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 이어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연이어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

이고 있다. ‘스마트싱스’ 기반의 AI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고객이 제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3~4월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에서 AI 진단 기능을 활용한 고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현장 서비스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된다. 출장 엔지니어는 ‘스마트 진단 앱(HASS)’을 활용해 제품 상태와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또 전국을 1,000여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술력과 수리 시간 등을 고려해 최적의 엔지니어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 기반의 정밀 진단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제주항공, 中 노선 운항 확대… 무비자 여행 수요 대응

25일부터 부산~상하이 신규 운항

제주항공이 한국과 중국간 제한적 무비자 정책으로 양국간 여행 수요 증가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오는 7월 25일부터 부산~상하이(푸둥)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운항하고, 10월 1일부터는 인천~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국 노선 확대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중국을 찾는 여행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제주항공의 올해 중국

노선 수송객 수는 1월 3만1000여명에서 6월 5만4000여명으로 월평균 약 12%씩 꾸준히 증가했다. 탑승률도 1분기 70% 중반대에서 2분기 80% 중반대로 상승했다.

부산~상하이노선은 월·수·금·일 일정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15분(현지시간)에 출발해 상하이푸둥 국제공항에 다음 날 오전 0시 5분에 도착, 상하이에서 오전 4시에 출발해 김해에 오전 6시 4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인천~구이린 노선에는 수·목·토·일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오후 9시 25분에 출발해 구이린 량장국제공항에 다음

날 오전 0시 40분에 도착, 구이린에서 오전 1시 40분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온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제주~시안 노선에서 주 2회(화·토)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했고 인천~웨이하이 노선은 10월 25일까지 주 3회, 인천~엔지노선은 8월 26일까지 주 1회를 증편해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3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국내 방문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혁신의숲 “스타트업 투자규모 증가 추세”

헬스케어·제조 등 기술분야 집중

2025년 6월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헬스케어·제조 등 기술 기반 분야에 집중했다.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 ‘혁신의숲’은 2025년 6월 스타트업 투자결산을 통해 지난달 투자 건수가 85건, 투자금액은 약 4679억 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5월(61건, 약 2273억 원) 대비 각각 39%, 106% 증가한 수치로, 올 들어 가장 뚜렷한 반등세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헬스케어·바이오산업이 약 1676억 원을 유치하며 3개월 연속 투자유치금액 1위를 차지했다. 제조·하드

웨어 분야도 약 123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7배 이상 급증하며 2위에 올랐고, 인사·비즈니스·법률 분야가 약 43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제조·하드웨어 분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바이오(17건), AI·딥테크·블록체인(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분야는 전월 대비 거래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양적 성장과 함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의숲은 이번 반등이 단기 이벤트성 변화라기보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 회복, 정책 자금 유입, 산업 구조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자투리 시간에 돈 번다”… 쇼핑·게임 등 진화하는 앱테크

샵백플레이, 간단 미션으로 캐시백
호텔스닷컴과 숙박권 이벤트 진행
칩스, 모바일 쿠폰 거래기능 도입
바이보너스, 증권사·거래소 혜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출퇴근,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주머니에 돈이 쌓인다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시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에 ‘앱테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버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앱테크쪽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발한 방법과 이벤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거에는 걸음 수를 충족하면 포인트나 상품권을 주는 ‘만보기 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취향에 맞는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쇼핑 경유 플랫폼부터 모바일 앱의 다채로운 이벤



샵백코리아가 지난달 26일 간단한 미션을 완료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샵백플레이’를 론칭했다. /샵백코리아

트까지 점차 진화하는 앱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간단한 미션 완료시 현금 캐시백 주는 ‘샵백플레이’ 론칭

7일 업계에 따르면 쇼핑 경유 플랫폼 샵백코리아는 게임, 쇼핑, 클릭 등의 미션 완료 시 현금 캐시백을 지급하는 새로운 게임형 캐시백 서비스 ‘샵백플레이’를 론칭했다.

유저들은 샵백코리아 앱에서 ‘샵백플레이’에 접속 후 게임에 특화된 ‘레드 존’과 게임·쇼핑·클릭·SNS 구독 등으

로 참여할 수 있는 ‘블루 존’ 두 곳에서 캐시백을 적립하면 된다.

‘레드 존’에서는 솔리테어 오션, 도미노 드림스, 트레블 타운 등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 참가 가능하며, ‘블루 존’에서는 간단한 게임 미션, 회원가입, 쇼핑, SNS 구독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루 5분, 출퇴근과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캐시백을 지급하며, 5000원 이상 승인 완료 시 현금 계좌나 네이버페이로 환급이 가능하다.

또 샵백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호텔스닷컴과 함께 ‘인기여행지 호텔 숙박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샵백 앱에서 ‘챌린지 시작하기’를 누른 후, 샵백을 경유해 호텔스닷컴에서 총 60만원 이상을 결제하고 내달 30일까지 투숙하면 사이판, 괌, 다낭 등 인기 여행지 호텔 숙박 응모권이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무료 호텔 바우처가 제공된다. 응모권은 구매 금액에 대한 캐시백이 적립돼 승인 대기 상태가 되면 자동 발급된다.

◆엔비티 - 앱테크 서비스 ‘칩스’에 모바일 쿠폰 거래 기능 도입

포인트 플랫폼 운영 기업 엔비티는 앱테크 서비스 ‘칩스’에 모바일 쿠폰(기프트콘) 거래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칩스 이용자는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교환처가 제한적인 모바일 쿠폰을 간편하게 판매할 수 있으며, 정산금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엔비티 관계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별도의 대화나 흥정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며 “사용자 편의성과 거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앱테크 플랫폼 바이보너스 - 증권사·가상화폐 거래소 이벤트 정보 제공

최근 앱테크 플랫폼 바이보너스는 증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벤트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규 오픈했다. 지난달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바이보너스는 사용자들이 기업에서 진행 중인 각종 보너스 혜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가입 후 8만원, 키움증권 가입 시 4만원, 미래에셋증권 4만원 등 국내 증권사들의 주요 혜택들을 확인 가능하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회원가입 후 7만원을 지급해주는 이벤트를 알려주거나 바이비트, 비트겟, MEXC 등 해외 거래소의 신규 가입 이벤트도 소개해준다.

바이보너스 관계자는 “보너스를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타 플랫폼의 이벤트 정보를 큐레이션해 전달하는 것이다”며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각 증권사나 거래소의 공식 채널에서 직접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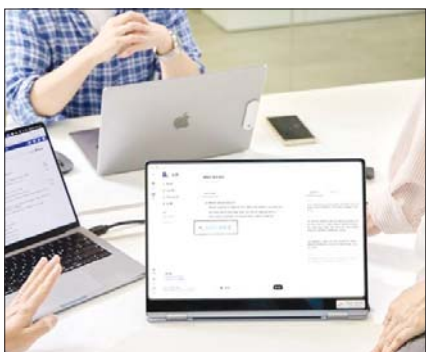
SKT 에이닷, 일주일만에 사용자 30만명 돌파

다양한 상황 음성 AI 실시간 기록
사용 목적 맞춰 핵심 내용 정리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에 베타 버전으로 탑재한 노트 서비스의 누적 사용자가 출시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달 30일 선보인 에이닷 노트는 음성으로 이뤄지는 모든 순간을 AI로 기록하는 서비스로, AI가 다양한 상황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받아 쓰고 요약한다.

녹음이 종료된 후 이용자가 ▲요점 정리 ▲회의록 ▲강의 노트 중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AI가 사용 목적에



SK텔레콤이 AI 서비스 에이닷에 탑재한 노트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

맞춰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에이닷 노트는 실시간으로 음성 정보를 문자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녹음 중 중간중간 화면을 통해 기록되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시간마다 내

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인 ‘실시간 요약’을 통해 회의 중 놓친 내용을 다시 찾는 것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출시 후 일주일간의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노트 서비스의 주요 사용 시간대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5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노트 서비스의 사용 비중은 iOS·안드로이드 등 앱 환경이 80%, PC 웹 환경이 20%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이 많았다.

SK텔레콤은 ▲템플릿 다양화 ▲외국어 지원 확대 ▲녹음 시간 확대 등이 이용자들이 요청한 기능을 올 하반기 정식 버전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T, 한달간 AI 스팸차단 건수 150% 늘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KT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스팸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당일 스팸 차단 건수가 150%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스팸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등록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1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키워드를 찾고

등록하는 데 하루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AI 기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록 소요 시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스팸 키워드 등록이 가능해져 24시간 대응 체계가 구축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KT가 이 시스템을 약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당일 스팸 차단 건수가 1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I가 등록한 키워드는 전체의 5.5%에 불과했지만 이로 인한 차단 비중은 45.9%에 달했다. /김현정 기자

SK AX, SHE AI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안전·보건·환경〉

내일 ‘산업안전보건 전문 세미나’ 참가

SK AX가 오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문 세미나’에 참가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현장 안전·보건·환경(SHE) 혁신 방안을 공유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산업안전의 달을 기념해 마련된 부대행사에서 SK AX는 ‘SHE AI 예측형 플랫폼,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꾼다’를 주제로 개별 세미나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SHE 혁신 사례와 기술 적용 방안을 공개한다.

SK AX는 세미나를 통해 현장 안전과 성과 개선을 동시에 고민하는 SHE 담당자와 ESG, 안전 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발표는 SK AX 애커튼파트너스 이강돈 SHE DX담당이 맡아 AI 자율

비행 드론, AI 협동로봇 시스템, AI 작업위험성평가 등 산업 현장에 도입된 실제 사례를 통해 SHE 업무가 어떻게 AX로 혁신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AI 도입의 정량적 효과와 기술 외 조직·운영 측면의 쟁점을 짚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실무 중심 AX 관점으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SK AX 이정훈 SHE플랫폼개발팀장이 AI 기반 SHE 업무 플랫폼, ‘아이팩츠SHE’를 소개한다. 이 플랫폼은 안전작업 허가, 사고관리, 공정안전관리(PSM), 화학물질 및 환경관리 등 제조 현장 SHE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현장에서 판단·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특히 복잡한 규제 대응과 실시간 위험 감지, 정확한 데이터 기반 보고 체계를 통합 구현해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 체감 가능한 제조 SHE AX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LG U+, AI 통해 데이터센터 냉방효율 고도화

LG전자-LG CNS와 ‘맞손’

LG유플러스는 LG전자, LG CNS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센터 냉방 효율화 기술(DCIM) 실증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고도화된 관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AI를 통해 냉방 설비를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가상 환경에서 운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냉각 에너지 소비를 최대 10%까지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우진 LG전자 오픈 이노베이션 TF 담당, 박완규 LG전자 칠러사업담당, 정숙경 LG유플러스 A IDC사업담당, 오중수 LG CNS 스마트시티서비스사업담당(왼쪽부터)이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실증은 LG유플러스의 평촌2센터에서 이뤄지며, 냉동기와 컴퓨터룸 공조기(CRAC) 등 주요 설비에 AI 제어 알고리즘과 디지털 트윈 모델이 적용된다.

LG전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CRA C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평촌2센

터 설비에 도입해 최적의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LG CNS는 데이터센터 환경을 정밀하게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설계하고, 향후 다양한 센터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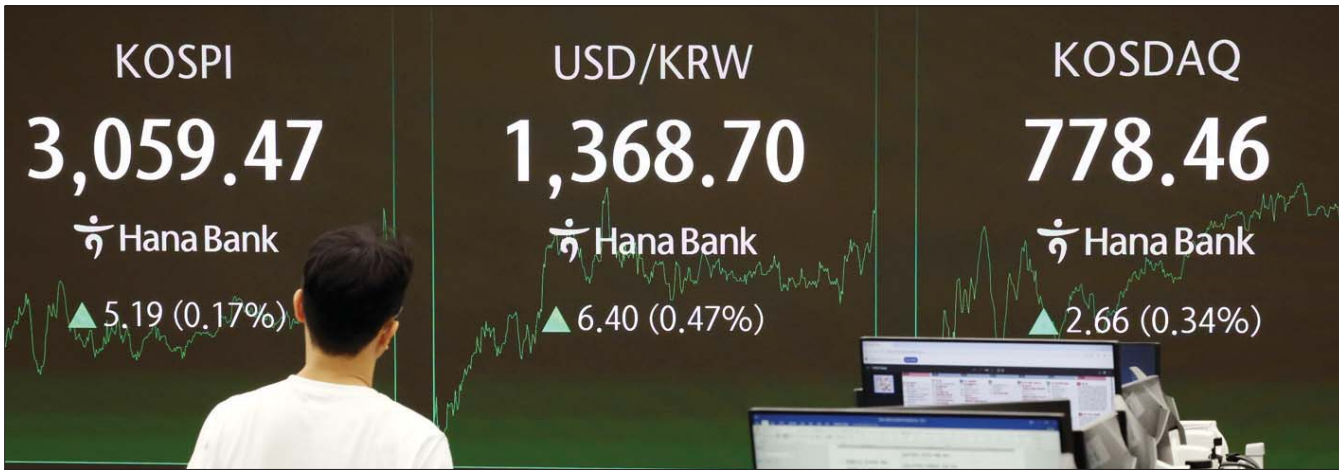
국내 증시, ‘서머앨리’ 기대감 고조… 상호관세 협상 변수

7월에 가장 많은 상승빈도 보여
美 ‘상호관세 협상’ 시한 압박
“소외주 중심 순환매 전략 적합”

계절적 강세 흐름을 보여온 7월 국내 증시에 예년과 다른 긴장감이 감돈다. 과거 45년간 가장 많은 상승 횟수를 기록한 7월이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과 맞물리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수급과 실적 시즌 기대에 기댄 전통적인 ‘서머앨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는 7월에 총 29차례 상승해 1년 중 가장 상승 빈도가 높았다. 같은 기간 3월과 11월은 28회, 4월과 12월은 26회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7월 평균 수익률도 2.1%로, 월간 기준 최상위권이다.

외국인 순매수 흐름도 뚜렷했다. 1998년 이후 7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선 해는 27년 중 18년 이었고, 평균 순매수액은 약 4600억원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054.28)보다 5.19포인트(0.17%) 오른 3059.47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에 달했다. 2009년 7월에는 6조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한 달간 코스피가 12% 급등하기도 했다.

이처럼 7월은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달’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정반대의 변수들이 겹쳐 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다. 트럼프는 4일부터 관세 부과 관련 서한 발송을 개시한다고 밝히며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주말을 활용한 강경 발

언→막판 협상”이라는 전례에 따라, 단기적으로 SNS를 통한 관세 위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는 과거에도 협상 시한 직전까지 관세 협박 수위를 높이며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며 “이번에도 협상 지연 및 강행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10.4배로 최근 3년 평균(10.2배)을 웃돌고 있어, 단기적으로

는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단순한 관세율 변화보다 무역 정책 자체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간접 충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 이날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5%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화학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충격이 집중되며, 이 가운데

운송장비 부문만으로도 0.3%의 GDP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량 분석이 나왔다. 또한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GDP 충격은 ?0.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질 GDP 감소와 시장 과열 우려도 속에도 정부 정책 기대감은 여전히 증시의 하단을 떠받치는 요소로 보고 7월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분석도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 추경 통과 등 자본시장 정책 모멘텀이 살아 있어 하단 지지는 유효하다”며 “정책 기대에 선반영된 종목보다는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소외주 중심의 순환매 전략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6월 한 달간 14% 가까이 급등하며 310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라며 “이번 주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동학개미, 국내 주식형 ETF ‘뭉치돈’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이동 흐름
고율관세·전쟁 등 불확실성 영향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이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려 들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주식형 ETF 설정액은 50조7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조7528억원)보다 24.61% 증가한 수치다.

국내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 부진과 12·3 비상 계엄상태로 부침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반등 흐름이 이어졌다. 1월 초 40조원 초반대였던 설정액은 약 6개월 만에 10조원 넘게 불어나며 50조원을 넘어섰다. 해외 주식형 ETF는 지난해 말보다 7조4383억원 늘었

다. 설정액은 39조1350억원이다.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ETF의 자금 흐름이 반전된 것은 국내 증시의 강세와 해외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며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한편, 해외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운용업체는 국내 ETF가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안정성과 수익률 개선 흐름이 맞물리면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분위기”라며 “최근에는 조선, 방산, 고배당 등 뚜렷한 투자

테마가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성이 명확한 국내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금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증시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원화 가치 상승과 새 정부 내수 부양책이 함께 발휘되면 정책 수혜주와 함께 극도로 부진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운용, ‘PLUS ETF’ 상반기 수익률 1위

‘PLUS K방산’ 수익률 163%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PLUS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반기 국내·해외주식형 ETF와 미국 상장 ETF 수익률 1위를 모두 석권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PLUS K방산’ ETF의 상반기 수익률은 163.31%로, 레버리지를 포함한 국내주식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PLUS 한화그룹주’ (123.82%), ‘PLUS 태양광&ESS’ (82.67%), ‘PLUS 우주항공&UAM’ (81.47%) 등이 각각 3위, 8위, 9위를 기록하며 수익률 상위 10위권 내에 4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주식형 ETF 부문에서도 ‘PLUS 글로벌방산’ ETF가 상반기 61.64%의 수익률로 1위에 올랐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레버리지·인버스 제외) 중

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PLUS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KDEF)’ ETF는 올해 2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94.73%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자금 유입도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PLUS ETF의 순자산 총액은 5조 6744억 원으로, 지난해 말(3조 3437억 원) 대비 69.70% 증가했다. 이는 ETF 상위 10개 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점을 성장의 배경으로 꼽았다. PLUS ETF는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장학생 지원

240여명 장학증서 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33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7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제33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40여 명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수여받고, 해외파견을 앞둔 장학생 간 교류의 장도 함께 마련됐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는 미래에셋의 경영이념 아래 운영되고 있는 해외교환 장학사업은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인재육성 프로

그램이다. 2007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50개국, 7687명의 대한민국 대학생에게 세계 유수 대학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전공과 언어, 문화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전형과 온라인 면접 전형을 통해 진행됐으며, 세계 무대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통해 전공과 진로를 심화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대학생들이 선발됐다. 파견지역에 따라 장학생들에게는 미주·유럽 지역 750만 원, 아시아 지역 55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장용성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은 “해외 파견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학업과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삶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제33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념사진 촬영 모습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에 대해 고민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각을 키우고, 주변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1000억

KB자산운용 연초 이후 수익률 34%

KB자산운용의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며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밸류업 정책 수혜 가능성이 큰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집중된 모습이다.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초 이후 33.9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6.59%, 25.98%로 집계됐다.

특히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는 연 0.008% 수준으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와 밸류업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국내 최저 수준의 보수와 월배당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꾸준히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빵·커피 등 가공식품 최대 반값 대형마트·편의점 등 할인 릴레이

농식품부, 식품·유통 물가 논의
라면·커피 등 여름 수요 품목
휴가철 채감물가 완화 총력
내달 추가 할인 논의 이어져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이달 중 전국 대형마트 및 편의점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라면, 빵, 아이스크림, 캔커피, 탄산음료, 김치 등이 주요 할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유통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물가안정을 위한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달에 중점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김치, 라면, 아이스크림, 커피, 음료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치솟은 가격을 언급했던 라면의 경우, 농심은 지난 3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할인을 시작했다. 봉지라면과 컵라면 등 품목에 대해 농심은 16~43%, 2+1 할인을, 오투기는 10~20%, 1+1, 2+1, 3+1 등을, 팔도는 10~20%, 2~50%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행사 품목의 경우, 기업들이 자체로 마련한 부분이 있다”며 “라면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인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빵은 SPC에서 식빵, 호떡, 샌드위치 등을 10~50% 할인하고 2+1 행사를 실시한다. 김치의 경우, CJ제일제당, 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유통업계와 함께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라면·빵·음료·김치 등 가격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7~8월 중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라면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상, 사계담(김치협회 공동브랜드) 등 주요 제조사가 동참한다. 온라인몰과 홈쇼핑, 오프라인 할인이 예정돼 있다.

아이스크림과 캔커피·탄산음료 부문에서는 빙그레, 롯데월드푸드,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해태HTB 등 다수 업체가 20~50% 할인 또는 1+1 행사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할인행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뿐 아니라 유통업체 자체적으로도 진행된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업체도 이달 중 연계 할인행사를 전개한다.

할인행사가 오히려 수요·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 국장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아 이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소비자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7~8월에 가공식품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8월 추가 할인계획은 이달 행사 시행 이후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가공식품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확대(21개 품목)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총 1256억 원)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등의 정책도 추진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4.6% 올랐다. 품목 중에서는 초콜릿(20.4%), 김치(14.2%), 커피(12.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식품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IoT 활용 농업용저수지 녹조 차단

농어촌공사 354곳 감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 녹조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짧은 장맛비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녹조 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예찰부터 제거에 이르는 선제적 녹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6월부터 8월까지를 ‘녹조예찰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국 354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90개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수온, 탁도, 오염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조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조가 확인되면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화학적 제거와 물리적 차단을 병행해 녹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단계별로 녹조 제거제를 살포하고, 녹조 제거선과 조류 차단막을 활용해 녹조의 원인인 조류 번식을 차단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수원, 기부·봉사로 지역사회 보답 나서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를 시행한다.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는 체코 원전 수주에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답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7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KHNP 아너스클럽’ 제1호와 2호 직원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본사 로비에서 기부 행사인

‘한수원의 아름다운 데이’에 참여해 헌옷과 헌 물품을 기부했다. 본사 임직원들은 각종 물품을 기부하며 자원순환을 실천했고, 최다 물품 기부 직원에게는 간식 선물권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기부된 물품들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국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황 사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게 됐다”며 “한수원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기념해 사회공헌 임팩트 워크를 시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산모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부, 2차 추경 128억 증액 편성
프리랜서·1인 사업자 지원 사각 해소
출산 소득단절 생계보전 신속 추진

정부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원 더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

다. 이로써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총 346억원이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1784명에게 출

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이미 예산의 88.4%인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 8월 이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더 지원, 올해 총 2만여명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한 신속 지원이 가능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경포호 미생물서 올리고당 생산 효소 발견

환경부, ‘베타 아가레이즈’ 확보

신종 미생물에서 추출한 효소로 기능성 올리고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신종 미생물로부터 ‘한천(우물가사리과)’을 분해하는 효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기능성 올리고당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6월 연구진은 강릉 경포호에서 한천 분해 능력이 뛰어난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경포호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신종 미생물은 한천 등 해조류의 주요 성분인

아가로오스를 분해하는 ‘베타-아가레이즈’ 효소를 보유하고 있다.

실험 결과, 베타 아가레이즈는 한천의 아가로오스를 분해해 기능성 올리고당인 네오아가로비오스와 네오아가로테트라오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질은 장내 유익균 증식, 면역 기능 강화 등 건강 기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향후 식품과 화장품, 의약 소재로의 활용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영 FTA 개선 5차 협상, 서울서 개막

산업부, 16개 분과별 세부 협의

우리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투자·서비스 등 16개 분과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영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개선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 세부 협상이 예정돼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양국은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4차례의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권혜진 산업부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참여하며 영국은 아담 팬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대표단 규모는 약 60명이다.

권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 2025

HANNOVER MESSE 2025

참관 및 산업시찰단 모집

- 개최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9월 26일(금)
- 개최 장소 : 독일 하노버 / Messegelände 하노버 전시 센터

EMO(European Machine Tool Exhibition)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및 생산기술 전시회로, 유럽공작기계협회(CECIMO)가 주관하는 국제적 권위의 산업 전시회입니다.

[행사 개요]

- 정식명칭 : EMO (Exposition Mondiale de la Machine Outil)
- 개최지 : 독일 하노버 (주 개최지)와 이탈리아 밀라노 순회
- 주최기관 : VDW (독일공작기계협회)
- 개최장소 : Deutsche Messe AG (하노버 전시장)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전시회 : 공작기계, 자동화 솔루션, 생산기술 전시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특별 전시관 운영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 신제품 발표회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중국 상해 알루미늄 박람회 [Aluminum China 2025]	25년 7월 09일 ~ 7월 11일	중국 / 상하이
2	중국 광저우 국제 태양광 박람회 [Solar PV World EXPO 2025]	25년 8월 08일 ~ 8월 10일	중국 / 광저우
3	에센 용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5	태국 2025 SOUTHEAST ASIA [METEC] [GIFA] [WIRE,TUBE]	25년 9월 17일 ~ 9월 19일	태국 / 방콕
6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7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8	독일 뉴렌베르크 기술 및 기기 박람회 [POWTECH 2025]	25년 9월 23일 ~ 9월 25일	독일 / 뉴렌버그
9	호치민 기계 전시회 [MTEALEX 2025]	25년 10월 08일 ~ 10월 15일	독일 / 호치민
10	독일 엘리베이터 박람회 [INTERLIFT 2025]	25년 10월 14일 ~ 10월 17일	독일 / 뉴렌버그
11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12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13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14	옌티엔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5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6	상해 국제 주조 주물 박람회 [CSFE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7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8	STEELFAB	26년 1월 12일 ~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 / 샤르자
19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20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21	대만 국제 파스너 박람회 [Taiwan International Fastener Show 2026]	26년 4월 22일 ~ 4월 24일	대만 / 가오슝
22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23	밸브 박람회 아시아 2026 [Valve World Asia 2026]	26년 6월 22일 ~ 6월 23일	중국 / 상하이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부산시, 美 관세유예 종료 대비… 수출피해 최소화 총력

수출기업 긴급 점검 회의 개최
긴급운전자금 등 지원책 총동원
‘관세 119’ 상담창구 운영 강화
신시장 개척·무역구조 다변화

부산시는 오는 9일 종료 예정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대비해 7일 오후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위기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산지원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상공회의소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수출기업 3곳(헬릭스 테크, 지맥스, 자연지에)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 대표들은 실제 수출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고, 기관과의 협



부산시청 전경.

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오는 9일까지 미 상호관세 부과 여부 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수출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기업의 수출 손실 위험(리스크)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부산시 비상수출대책 2.0’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시는 ▲1개 사 최대 대출한도 8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1천억 원 규모로 지원 ▲수출보험·신용보증료 확대 지원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지원 분야 신설 ▲‘관세 대응 119’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운영 ▲대미 중심 무역구조 탈피·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지역기업의 긴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출위기 현장 대응반’ 운영해 피해기업 밀착지원에 나섰다. 6월에는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 이슈 등을 공유하는 ‘녹산산단 관세 핀셋포인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분산된 수출 지원 정보 접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고도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1기업 1고문 변호사제 도입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점검회의는 미국 관세 유예종료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해수욕장 4곳 이달 11일 개장

경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총 38일간 지역 내 해수욕장 4곳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오류고아라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 4곳이며, 전촌솔밭해변은 올해 개장하지 않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시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루 78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명 구조요원과 소방·경찰 인력, 해변 순찰 인력 등이 각 해수욕장에 분산 배치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김천시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건립

경북 김천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천시는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는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부품산업 구조를 전동화·경량화 중심의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총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김천 일반산업단지 내 1980㎡ 규모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천(경북)=김진곤 기자

경북도, 동해선 따라 관광열차 달린다

경북·강원·부산·울산 공동 기획
관광·미식·체험 결합한 테마 열차

오는 17일과 19일 동해선에서 ‘완벽한 기차여행’ 관광전용 열차가 운행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관광열차는 동해안관광진흥협의회(경북, 강원, 부산, 울산 4개 시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완벽한 기차여행’은 17일 부산-울진, 부산-삼척-동해 코스와 19일 울진을 경유하는 동해-부산, 동해-울산 코스 등 4가지 코스로 구성된다.

열차 여행에는 지역 관광, 문화 체험, 미식, 열차 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돼 있다.

여행비용은 왕복 열차료, 식비, 입장권, 가이드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열차 안에는 1일 바텐더로 임명된



울진 케이블카.

코레일 직원이 만드는 하이볼 시음 및 지역 특산물 체험이 가능한 ‘완벽 카페’와 관광지 사진으로 꾸며진 ‘포토존 및 셀프 사진기 부스’도 마련된다.

17일 운행하는 울진 코스에서는 10만5000원으로 열차 내 모든 콘텐츠와 함께 왕피천케이블카, 성류굴, 덕구온천과 바지게시장 등 동해안 필수 여행지를 체험할 수 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여름철 가축질병 집중 방역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체계 가동

경남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파리 등 주요 매개체의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럼피스킨 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조기에 알리고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고공포집기 18개와 거점센터 4개소를 통해 전국 예찰 농가 120호를 대상으로 침파리 등 매개곤충을 상시 채집 분석한다.

위험주의보는 침파리에서 럼피스킨 병 바이러스 검출, 고공포집기에서 침파리 채집이 확인됐을 때, 예찰농가 대상 평균 침파리 20마리 이상 채

집되는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 발령된다.

경남도는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했던 지난해 7월 말 침파리 평균 채집수가 21마리였던 점을 언급하며 7~8월 집중 예찰 기간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농가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 자율 방역이 곧 최선의 백신”이라며 “여름철은 침파리와 모기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백신 접종과 축사 내·외부 환경관리 등 농가 차원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주의보 발령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럼피스킨 외에도 아까비네병, 소유행열, 축사 환경 정비 등 축산농가의 실천 사항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기장군, 오션블루레일 사업 추진 본격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기장군이 추진하는 ‘기장오션블루레일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남부권 관광 개발계획’의 핵심 사업인 기장오션블루레일 구축 사업은 장안읍 좌천역에서 월내역까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월내항 일대에 자연친화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4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친환경 생태휴식 공간인 에코숲,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 오버브리지 전망대, 유람선 선착장 역할을 할 에코 스테이션, 미디어 아트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올해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2026년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울산 장생포항에서 기장까지 관광유람선 항로가 신설돼 남부권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장(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우즈베크 조선 숙력인력 양성 성과

전기·도장·사상 분야 기술 교육

울산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2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훈련소 내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에서 조선업 기술인력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김두겸 시장과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이민청장, 하이룰라 보자로프 페르가나 주지사, 수료생과 교육 감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수료증 수여 ▲기념촬영 ▲교육 현장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약 3개월간 실시된 전기 ▲도장 ▲사상 등 3개 분야의 국제 수준 기술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이수했다.

수료생은 총 97명으로, 이들은 향후 울산지역 중소조선소에서 취업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수료식은 단순한 교육 마무리가 아니라 이들이 기술 인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울산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대구시

‘청년 정책 제안’ 공모 실시

대구시는 전국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대구시 사회초년생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1986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한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 제안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토크대구’나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윤여원 “실적부진? 창사이래 최대매출”… 오빠 주장 반박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경영권 분쟁’ 콜마그룹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완전독립 방식 경영 못 이루고
대면 보고로 주요사업 결정돼”

홀딩스 “일부기간 매출 상승으로
유리한입장 조장, 시장·주주 혼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콜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남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동생인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실적 부진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힌 직후, 오빠가 부회장으로 있는 콜마홀딩스 역시 ‘경영실패’라는 반박 입장문을 내며 대립을 이어갔다.

이제까지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화장품 위탁개발생산(ODM) 기업 콜마홀딩스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강기능식품 위탁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는 ‘장녀’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각각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의 부진한 실적을 문제 삼으며 경영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밝혀

남매 간의 갈등을 키워왔다.

7일 윤여원 대표는 처음 입장문을 내고, 콜마비엔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에 대한 콜마홀딩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가 지적하고 있는 ‘실적 부진’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라고 주장했다. 시장 악화 상황에서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해 연결기준 61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당 실적은 창사이래 최대 규모이며 윤 대표 단독 체제 1년 차에 거둔 성과다.

다만, 콜마비엔에이치는 올해 들어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역성장

을 보이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한 매출은 184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0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14.9% 감소했다.

이에 대해 콜마비엔에이치는 월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지난 3월 36억원, 4월 36억원, 5월 36억원 등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월별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36억원) 규모를 각각 달만에 달성한 결과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은 콜마비엔에이치는 올해 연간 매출 6350억원, 영업이익 320억원 등

을 전망하고 있다. 각각 전년 대비 3%, 30% 증가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OPM)은 5%를 예상한다.

콜마홀딩스가 문제 삼고 있는 ‘콜마비엔에이치가 본연의 사업에 소홀했다’는 점도 짚었다. 콜마비엔에이치 경영은 완전 독립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고, 그동안 정기적인 대면 보고 등을 통해 주요 사업 전략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표가 독단 추진해 실패한 경영 사례로, 콜마비엔에이치의 화장품 및 일반식품 도소매 자회사 ‘콜마생활건강’,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자회사 ‘에치엔지’ 등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콜마생활건강의 경우,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이 검토하고 그룹 차원의 사전 조율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아닌, 화장품 관련 사업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ODM 기업들이 시장 흐름과 소비자 수요를 읽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노하우가 필요하

고 이는 대부분 ODM 기업들이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운영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에 반해, 콜마홀딩스 역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콜마비엔에이치와 윤 대표에 대해 ‘경영실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콜마홀딩스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콜마비엔에이치 주력 사업 재편, 경영 쇄신 등에 중점을 두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콜마비엔에이치 시가총액은 2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폭락했다. 영업이익도 최대 1092억원 수준에서 246억원으로 1/4 토막 나면서 영업이익률은 78% 급감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일부 기간, 매출만 소폭 올랐다는 것을 떼어내 유리한 입장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윤상현 부회장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도 지주회사 주요 경영진으로서 그룹 관리 차원에서 진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콜마비엔에이치 측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정관장, 혈당·체지방 관리 ‘지엘프로’ 주목

여름 맞이 ‘GLPro 더블컷’ 캠페인
GLPro 7개월 누적매출 103억 달성

정관장이 여름을 맞아 ‘GLPro(지엘프로) 더블컷’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관장은 8월 31일까지 ‘GLPro 더블컷’, ‘GLPro 코어’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GLPro’ 3주 패키지 제품을 2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쇼퍼백을 증정한다.

정관장 ‘GLPro’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 103억원을 달성했다. 출시 초기부터 혈당과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으로 주목받은 ‘GLPro’는 2024년 국내 매출 약 1800억원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에브리타임’보다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



정관장 GLPro(지엘프로) 더블컷. /KGC인삼공사

고 있다.

‘GLPro’는 ‘GLPro 코어’와 ‘GLPro 더블컷’ 2종으로 구성됐다. ‘GLPro 코어’는 당류 0g 설계로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GLPro 더블컷’은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은 정관장 홍삼(KGC05pg)에 한국인

남녀 대상 인체시험 결과 내장지방 20% 유의적 감소를 확인한 기능성 원료 레몬밤추출물혼합분말까지 함유되어 있어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체지방, 내장지방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정관장은 최근 저속노화 트렌드와 맞물려 혈당 및 체지방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GLPro’의 인기 비결로 분석했다.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3040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마트한 체형관리 필수템’으로 사랑받으며 브랜드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GLPro’ 연령대별 구매비율을 분석한 결과, 5월 3040 소비자들의 구매비중이 전년도 10월보다도 약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MZ세대 타깃 확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풀무원지구식단 ‘고단백オート면’ 출시

밀가루 함량 낮추고オート 넣어

풀무원의 식물성 지향 식품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이 고단백·고식이섬유를 고려한 신제품 ‘고단백オート면’을 출시하며, 영양 강화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신제품 ‘고단백オート면’은 밀가루 함량은 낮추고 통곡물 귀리(オート)를 갈아 넣은 반죽으로 만들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귀리를 볶아 고소한 풍미를 살리고, 면 반죽에 곱게 갈아 넣어 쫄깃하고 매끄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고단백オート면’은 귀리를 그대로 한 번 볶은 뒤 가루로 곱게 갈아내 면 반죽을 만듦으로써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올리면서 매끈하고 쫄깃한 식감까지 더했다.

냉장 사리면 타입으로 끓는 물에 제품을 넣고 약 2분 삶은 뒤 다양한 면 요리로 활용하면 된다. 샐러드파스타, 비빔국수, 들기름 막국수 여름철 인기 면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풀무원지구식단은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적 이점을 제공하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CU, 가성비 중심 수산물 안주 상품 확대

편의점 CU가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안주 상품군을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피빅 ‘원양산 건오징어 특템’이 있다. 이번 상품은 현재 판매 중인 원양산 건오징어 중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U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수협중앙회와 공동 기획한 것으로, 대중성 어종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마진과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해 출시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온, ‘엘데이’ 특집 프로모션 진행

7·14·21·22·23일 총 5회 운영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엘데이’ 특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엘데이는 달력상 알파벳 ‘엘(L)’자 형태로 배열된 날짜를 기준으로, 롯데 계열사가 릴레이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 마케팅 캠페인이다.

이달에는 7일, 14일, 21일, 22일, 23일 총 5회 운영되며, 이 중 ‘메가 엘데

이로’ 21일을 지정해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을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7월 7일 엘데이는 여름방학을 주제로 한 여행·문화·외식 분야 상품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롯데위터파크 김해 종일권’, 롯데호텔 월드점에서 산리오코리아와 협업해 운영하는 ‘폼포푸린 망고 월드’ 관련 제품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지난 4일 샘표 본사 1층 우리맛공간에서 미국 교육행정가들이 완성한 요리를 들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샘표

샘표, 美 교육행정가 한식요리 체험 진행

K소스 소개, 겉절이·잡채 만들어

우리맛연구중심 샘표는 4일 샘표 본사 1층 우리맛공간에서 한국어진흥재단과 함께 미국 교육행정이 한국 연수 참가자들을 초청해 한국 식문화의 핵심인 장과 발효에 대해 소개하고 직접 요리해보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거나 한국어반 신설을 고려 중인 미

국 교장단이 참여해 그 의미가 더 컸다. 한국어진흥재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부를 두고, 미국 내 정규 초·중·고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확대하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날 샘표 이흥란 우리맛 연구원은 실습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식의 맛 비결이자,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문화를 가능하게 한 공 발효 장에 대해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알리바바닷컴, 韓 B2B 시장 공략… 거래 보호로 주도권 강화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앞세워 플랫폼 기반 신뢰 구축 본격화
서울·부산 거점 확대에 이어 K제품 글로벌 판로 지원 강화

“알리바바 닷컴은 한국 시장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며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당사의 디지털 툴(Tool)을 활용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7일 알리바바닷컴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 팰리스에서 ‘트레이드 어슈어런스(Trade Assurance) 서비스’ 출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행사에는 선 양 글로벌 사업개발 총괄 본부장, 썸머 가오 글로벌 공급망 총괄, 앤드류 천 알리바바닷컴 결제 및 거래 총괄, 마리오 양 알리바바닷컴 코리아 지사장이 참석했다.

알리바바닷컴은 한국 시장 공략에 앞서, 그 매개로 자사가 운영하는 거래 보호 서비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소



알리바바닷컴이 7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알리바바 Trade Assurance 국내 공식 출시’ 기자회견을 진행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개했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알리바바닷컴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거래 보호 서비스로 ▲바이어와 셀러 간 신뢰 보장 ▲온라인 결제 지원 ▲비즈니스 기회 확대 ▲불필요한 무역 리스크 최소화 ▲분쟁 중재 등 5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중 눈 여겨볼 서비스는 바이어와 셀러 간 신뢰 보장이다. 알리바바닷컴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서비스의 일환

으로 거래 대금 예치 제도(에스크로 시스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바이어가 결제를 진행하면, 대금은 즉시 셀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닷컴이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이후 바이어가 상품을 수령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해당 대금이 셀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썸머 가오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공급망 총괄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단순한 기술 상품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신뢰 시스템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의 거래를 지역 거래처럼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전했다.

알리바바닷컴은 한국 셀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낸다는 방침이다. 선 양 알리바바 글로벌 사업개발 총괄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 늘 항상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한국은 알리바바 닷컴이 주목하고 있는 세계 주요 시장 중 하나”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 열풍이 이어지면서 알리바바 닷컴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셀러들은 미국, 영국,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주요 국가의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문의와 거래 제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 알리바바닷컴이 개설한 한국 기업 전용 페이지인 ‘파빌리온’을 지난 7

월 개설한 이후, 1년 간 알리바바닷컴 플랫폼 내 한국 상품의 트래픽(상품 노출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한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소개했다. 선 양 본부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 사무실에 현지 팀을 확대하고,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면서 “올해 6월에는 남부 지역의 기업들이 이동에 부담 없이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에도 신규로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바바닷컴은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셀러를 대상으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건당 최대 100달러 한도로 4%(건당 최대 100달러 상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알리바바닷컴은 1999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산하에 설립한 글로벌 기업간 거래(B2B) 전자상거래플랫폼이다. 세계적으로 구매자(바이어)와 판매자(셀러)를 연결하는 대외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셀러가 전 세계 시장에 자사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ESG 평가서 ‘베스트 100’ 또 올라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에스티팜도 톱10 진입

동아쏘시오홀딩스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 ‘ESG 베스트 기업 100’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에스티, 원료의약품 사업회사 에스티팜도 2회 연속 100대 기업에 뽑혔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27위에서 4위로, 에스티팜은 30위에서 8위로 수직 상승했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처음으로 연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그룹에서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5000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기업에서 AA를 받은 바 있다. 동아에스티와 에스티팜은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그룹군에 속하며 2회 연속 AA등급을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경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곳을 발표하는데, 자산규모별로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50곳,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30곳, 5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은 20곳을 선정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동아쏘시오그룹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 모두와 협력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아모레퍼시픽 “컬러로 완성하는 나다움”

센슈얼 립 컬렉션 신규 색상 5종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 헤라에서 ‘서머 립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입술 메이크업 제품군인 ‘센슈얼’에 신규 색상 5종을 추가하고, 여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공개한다. 센슈얼은 ▲누드 글로스 ▲파우더 매트 ▲틴티드 샤인 등 3가지 제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투명하고 맑은 광택감을 갖춘 누드 글로스에서 썬베리, 체리콕, 허니드 등을 신규 색상으로 선보인다. 썬베리는 라즈베리 계열의 빨간 색이다. 체리콕

과 허니드는 한정판으로 각각 입술 본연의 생기를 연출해 준다. 벨벳 제형인 파우더 매트에서는 데어베어와 핑크헤이즈를 새롭게 출시한다.

이와 함께 헤라는 ‘한 겹의 컬러만으로도 자신만의 개성과 무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립 메이크업’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Z세대를 대표하는 모델 박제니, 유예린, 댄서 하리무와 함께 제작한 화보를 통해 헤라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관을 표현했다. ‘나다움’을 바탕으로 각 인물이 지닌 개성과 태도가 감각적으로 조화를 이뤘다.

/이청하 기자



마이핏 키해피.

동국제약

우리아이 맞춤 키성장

‘마이핏 키해피’ 출시

동국제약은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의 첫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인 ‘마이핏 키해피’를 출시했다.

‘마이핏 키해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장기 어린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글루추출물(FGO)을 함유했다. 국내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한 24주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섭취군은 3.78cm 성장 및 비섭취군 대비 신장이 0.87cm 추가 성장해 대조군 대비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대조군 대비 더 빠른 성장속도(HV), 키 표준 편차점수(SDS) 증가, 성장인자결합단백질(IGFBP-3) 확인 등 성장지표의 유의적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마이핏 키해피’는 ‘돈 워리, 키해피(Don’t worry, 키Happy)’라는 슬로건 하에, 하루 1포로 성장기 필수 영양소인 아연, 망간과 같은 미네랄을 1일 섭취량 기준 100% 충족하도록 맞춤 설계했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7살 자녀를 둔 엄마인 동국제약 상품 기획팀 팀장의 고민에서 출발해 정성껏 개발한 ‘마이핏 키해피’는 마이핏 브랜드 최초의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이라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여름철 진정·선케어 선택

히알루론 판테놀 수분 라인 4종

LG생활건강은 이마트 전용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에서 수분·진정 제품으로 ‘히알루론 판테놀 수분 진정 라인’ 4종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여름철 뜨거워진 피부를 위한 것으로, 초저분자부터 고분자까지 다양한 입자로 이뤄진 7종 히알루론산과 피부 진정 효능이 있는 ‘판테놀’을 함유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기초 제품으로 세안 후 피부결 정돈을 도와주는 ‘토너’,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 속당김을 개선할 수 있는 ‘세럼’, 피부 냉각 효과를 갖춘 ‘크림’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 ‘히알루론 판테놀 수분 진정 라인’ 4종. /LG생활건강

이와 함께 선보여지는 선크림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백탁 현상 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케이크 론칭 이벤트

SBS 가요대전 티켓 2매 제공

파리바게뜨가 파란라벨 ‘저당 그릭요거트 케이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025 SBS 가요대전 Summer’ 티켓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파란라벨 첫 케이크 제품인 ‘저당 그릭요거트 케이크’ 론칭을 기념해 대표적인 여름 음악 축제인 ‘2025 SBS 가요대전 Summer’와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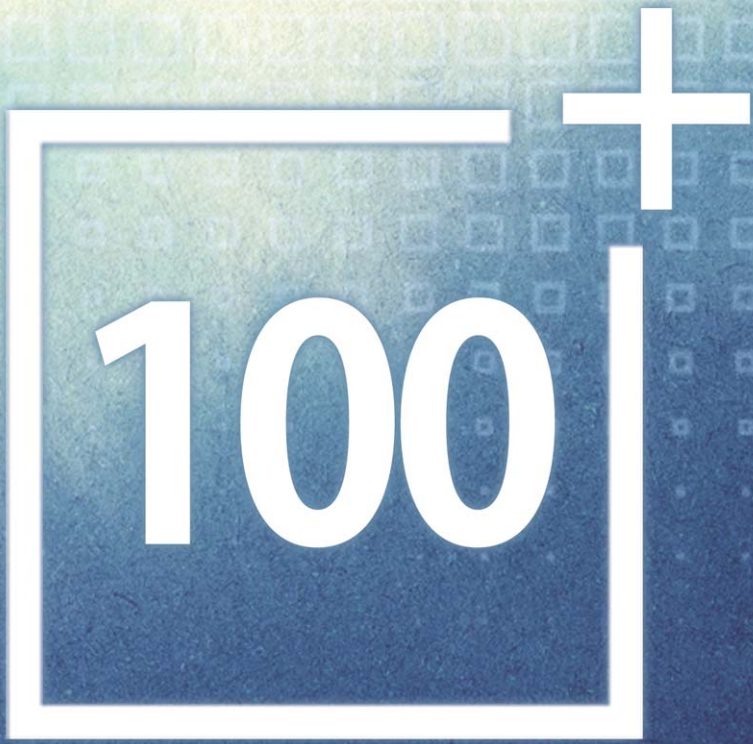
7일부터 17일까지 파리바게뜨 공식 애플리케이션 ‘파바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파바앱 이벤트 페이지 내 ‘스탬프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뒤, ‘파란라벨 저당 그릭요거트 케이크(홀)’를 구매하면 스탬프가 1회 적립되고, 적립 즉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는 ‘2025 SBS 가요대전 Summer’ 티켓(1인 2매)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파바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SBS 가요대전 Summer’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아이돌 그룹과 밴드 등 케이팝(K-POP) 아티스트 31팀이 참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초호화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파란라벨 케이크 소비자들을 위해 ‘2025 SBS 가요대전 Summer’ 공식 협찬을 통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프로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K이노, 베트남서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협약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짜빈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 기업 맹그라브와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현지에 축구장 4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 300 헥타르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LG U+, 유플투벨 제휴사 44곳으로 확대

LG유플러스는 이달 멤버십 혜택 유플투벨 제휴사를 44곳으로 늘렸다고 7일 밝혔다. 7월 휴가철을 맞아 ▲10일 아일랜드 캐슬(유플투벨 특가 제공·동반 2인까지) ▲14일 서울랜드(파크이용권 55% 할인) ▲16일 아쿠아필드(입장권 40% 할인) 등 여름 실내·외 액티비티 이용에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두산에너빌리티-제주대 ‘해상풍력 기술교류회’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대학교와 함께 ‘2025 해상풍력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3회째이며 오는 8일까지 제주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과 영광풍력실증센터 등지에서 진행된다.

/두산에너빌리티



iM금융그룹,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iM금융그룹은 황병우 회장이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동참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iM금융



신한투자증권, 자사 우수고객 특별 초청 행사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6월 10일과 26일, 자사 우수고객 대상 특별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1회차 행사인 이원일 셰프와 함께하는 푸드 클래스는 6월 10일 진행됐다. 이어 2회 차 행사인 달항아리 센터피스 플러워 클래스는 6월 26일 열렸다.

/신한투자증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미래 이끌 대학생 30명 선발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 운영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멘토들과 실질적 역량 강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대학생 챌린저 육성 프로그램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온소 퓨처스 컬리지’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8주간의 여름방학 집중 프로그램이다.

이번 4기에는 공학, 약학, 경영, 무용, 디자인 등 국내 17개 대학 20여 개 전공의 학생 30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 입학식 단체사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

실행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사회혁신 전문가 강연, 브레인 라이팅 실습, 스타트업 멘토링, 키스톤 캠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동명대학교 정병익 교수(문제 정의에 대한 방법론과 실습),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좋은 기획을

만드는 문제 설정 방법 강연 및 워크숍), 독립광고대행사 디마이너스원의 김동길 대표(크리에이티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기술투션이세라 디렉터(지식 확산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빅모빌리티 서대규 대표(비즈니스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재단의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펠로 기업의 대표(어글리랩 서호성 대표, 이너시

아 김효이 대표, 더뉴그레이 유대영 대표)가 멘토로 함께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무성 이사장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대학생들이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에 함께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라오스에 정비기술 재능기부

엔지니어 등 14명 봉사 참여 이론·실습 병행... 3개 과정 진행 아이오닉 5 등 교보재로 활용

현대차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국-라오스직업기술개발원에서 정비기술 재능기부 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현대차 하이테크 센터 소속 엔지니어 등 1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개발원 강사진과 현대차 라오스 대리점 정비사 등 총 61명이 수료했다.

교육은 현지 수요가 높은 디젤 엔진을 비롯해 전기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으로 구성됐

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3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라오스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 5, 투싼, 액센트 차량을 교보재로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이 이뤄진 한-라 직업기술개발원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2004년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라오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비기술 해외 재능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동국제강그룹 71주년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홀딩스

동국제강그룹,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위기 극복·미래 도약 다짐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가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가 창립기념일을 맞아 창업 정신을 되새기며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다짐했다.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영상 시청과 장기근속자 시상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3사 모두 모태 기업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창업

정신을 계승해 7월 7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날 동국제강그룹은 공식 유튜브에 장상태 동국제강그룹 선대 회장의 육성으로 구성된 창립 71주년 기념 영상 ‘시간의 대화’를 공개했다.

기념식 후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지기 봉사단’이 서울·부산·포항·인천·당진 등 사업장 인근 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차현정 기자 hyeon@

알테오젠, 이영필 부사장·CPO 영입

바이오횡약품 개발 전문가

알테오젠은 30년 이상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이영필 박사(사진)를 부사장이자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LG생명과학(현 LG화학 생명과학본부)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24년 이상 근무하며 CMC(화학·제조·품질) 전반을 이끈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으로부터 총 7건의 항암·면역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까지 유전자치료 벤처기업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사업개발을 이끈 바 있으며, 세포주 개발부터 분석법 개



발과 밸리데이션, 의료가기 개발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CPO는 통상 I T·플랫폼 업계에서 제품 전략 책임자 직책으로 쓰이지만, 알테오젠은 이번에 이영필 박사를 CMC, 품질, 생산, 제품화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사급 최고제품책임자로 임명했다.

회사는 이번 영입을 통해 CMC 전주기에 걸친 그의 전문성과 알테오젠의 상업화 전략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필 부사장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경영철학을 계승하고, 알테오젠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키움증권, 걸음 기부캠페인 2.4억보 기록

소나무 3362그루 심은 효과

키움증권은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키움과맑음 시즌2는 6월 한 달 동안 키움증권 전 임직원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동안 걸은 걸음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한 걸음은 총 2억4249만보를 기록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17만km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달성한 탄소 저감 효과는 2만2191kg이다. 30년산(生) 소나무를 최대 3362그루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걸음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총 7265명이었다. 키움증권 임직원은 533명, 일반 시민은 6732명이었다.

/원관희 기자 wkh@

인사

- ◆KBS △광주방송총국 총무국장 이경환 △방송문화사업국장 박승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기금운용계획과장 진민규

부음

▲이명달씨 별세, 이화춘(전 국제문제연구소 상임고문)씨 모친상=7일, 경남 함양제일장례식장 101호, 발인 9일 오전 9시. 055-962-4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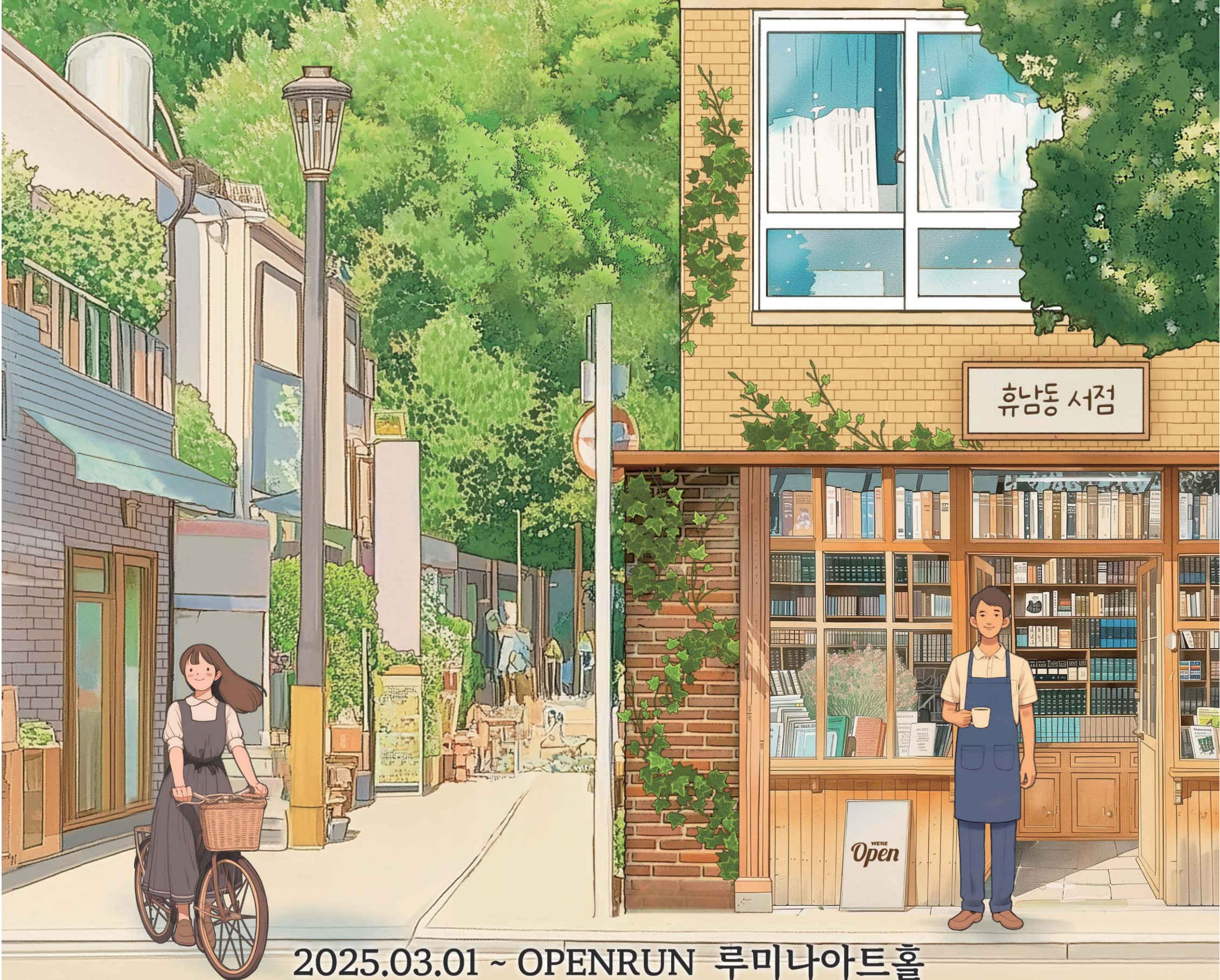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오답투성이 인생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파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간소화… 주택공급 속도낸다

공익사업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SH공사 동의 없이 절차 생략 가능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될 것”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

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K콘텐츠’ 매개 국제교류 활성화

美 디케이터 학생단 국제공동수업
애틀랜타 한국어 채택교 교원 연수

서울시교육청이 미국 현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제교류에 속도를 내며, 한국어와 서울 교육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국 위싱턴주의 디케이터 고등학교 학생단이 서울을 방문해 서울 학생들과 함께 국제공동수업 및 대면 문화교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미국 동부 애틀랜타에서는 현지 한국어 채택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법 및 에듀테크 활용 연수도 실시한다.

미국 위싱턴주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디케이터 고등학교(Decatur High School)의 한국어반 소속 학생 8명과 교사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의 영파여자중학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공동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서울의 학생들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K-POP 댄스 수업, 체육대회 등을 통해 교류하며, 서울국제고등학교의 영어 및 인문학 교과

공동수업에도 함께 참여한다.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애틀랜타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동부권 한국어 채택교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미국 내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연수 대상자는 미국 동부권 3개 한국교육원 소속 한국어채택교 교원 38명(애틀랜타한국교육원(26명), 시카고한국교육원(8명), 위싱턴한국교육원(4명)이다. 이들은 한국어교수법을 비롯해 에듀테크 활용 방법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서울시교육청 글로벌 디지털 교육서도 교사단이 참여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법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제 43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막식 기념사진.

/인천광역시

인천시, 27일까지 ‘대한민국연극제’ 대장정

시민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천에서 17년 만에 개최되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지난 5일 개막식을 통해 대장정의 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시와 (사)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7일까지 23일간 상상플랫폼을 비롯한 인천 전역의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이 열린 상상플랫폼에는 연극인과 시민 등 약 1500명이 몰려 열띤 분위기를 이뤘다.

본식 전 진행된 퍼포먼스 ‘항구 사람들’에서는 자원활동가와 연극인 110여 명이 유랑극단과 항구 노동자, 예술가 등으로 분장해 개항장 시대의 인천을 무대 위로 소환했다. 이어진 퍼포먼스 ‘희망의 땅, 인천’은 황해도에서 인천으

로 향한 이주민의 여정을 담았다.

1983년 시작된 대한민국연극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이번 행사는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를 슬로건으로 삼아 인천의 해양 정체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본선 경연과 함께 ▲시민연극제 ▲크로스페아프르페스타 ▲북마케도니아 합동공연 ▲국제연극포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연극제가 인천에서 다시 열려 매우 뜻깊다”며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글로벌 튼튼 도시를 향해 인천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연극을 통해 시원하고 풍성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받으세요”

전자고지·자동납부 이벤트

서울시가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된다. 또한 매월 1000명씩 총 5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000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이 추가로 감면된다.

/이현진 기자

교육장협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논의

양일간 하계 정기총회·워크숍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해 구성된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모여 교육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교육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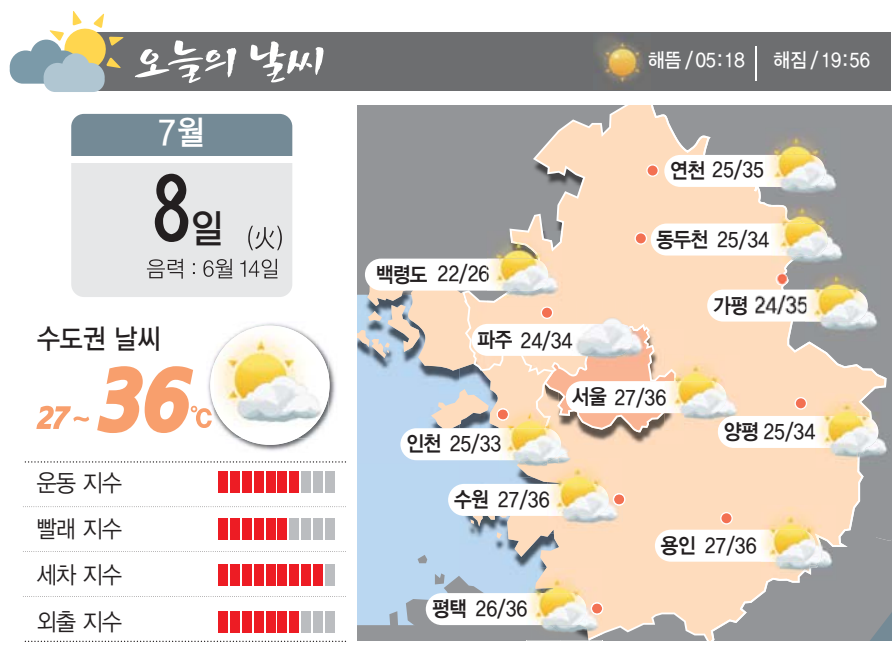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 강화 ▲다기관 연계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워크숍 1일차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회의 축사로 시작해 법 제정 취지 공유, 교육부 정책 설명,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사례 발표, 실행 전략 논의 등으로 진행되며, 2일차에는 교육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진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서한 발송… 협상 대상국 압박
▲中, 트럼프 관세 ‘뒷문’으로 빠져나가… 동남아 우회 수출 급증

▲푸틴 “브릭스, 세계경제 40% 차지해 G7 못들아… 다국적 세계 눈앞”
▲“무례하고 몰상식해”… 스위스 수영장, 프랑스 인 출입 금지



▲“남편·아내 아니고 배우자”… 홍콩, ‘동성부부’에 공공주택 문 개방
▲이스라엘, 예멘 홍해 호데이다항 폭격 계속… “테헤란처럼 만들겠다”

/사진 뉴스스



경영권분쟁 콜마그룹
실적부진 지적에
윤여원 “최대 매출”
L1



Life

알리바바닷컴
거래보호 강화 등
韓 B2B 공략
L2



디지털 문턱 낮추고, 친환경 속도 높이고... 포용의 길 달리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이동 그 이상의 가치여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그리고 파트너와의 상생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이동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소외 없는 모빌리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무용지물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ESG 활동 중 가장 주목받는 영역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도 모빌리티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KTis와 협업한 ‘114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다. 사용자가 ‘02-114’에 전화를 걸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전달하면, 상담사가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대신 호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출시 후 빠르게 확산되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 1만건을 돌파했고, 전체 고객의 약 20%가 다시 이용할 정도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서대문구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선보여온 ‘서대문희망차’는 이동 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서대문구 거주 장애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노약자나 부상으로 일시적 보행이 불편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12월 서울디지털재단과 ‘누구나 쉽게 배우는 카카오 T 택시 이용법’ 교육 영상 시리즈를 제작, 시니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문턱을 낮췄다. 앱 설치부터 호출, 결제까지 단계별 사용법을 3~5분 길이의 튜토리얼로 만들어 모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다.

◆파트너와 연대 강화,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재단’ 출범

“카카오모빌리티는 파트너들과 함께해 왔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2월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재단’을 출범하며, 플랫폼 종사자들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재단은 ‘택시기사 의료 생계 안심 지원 사업’과 ‘도로 위 히어로즈(모빌리티 종사자 의인 시상 프로그램)’를 체계화해 선보일 계획이다.

택시기사 의료 생계 안심 지원 사업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564명의 택시기사들과 가족들에게 의료 복지 혜택을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ESG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브서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올 여름 운영하는 전국 택시기사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한 ‘주니어랩’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바탕으로 ESG 활동 펼쳐
어르신 위한 ‘택시 불러주기’ 서비스
이동약자 불편 덜어주는 ‘희망차’ 운영

택시기사·가족 위한 의료 복지 혜택
여름방학엔 자녀 위한 ‘IT캠프’ 열어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 종이낭비 줄여
T 바이크 운영,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ESG 통합 브랜드 ‘201 캠페인’ 펼쳐



했다. 지난 4월부터는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료비 안심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 위 히어로즈 사업은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 중 선행을 실천한 의인을 찾아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사연을 접수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연 공모활성화를 위한 SNS 캠페인도 개시했다.

재단은 상생의 범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한 ‘주니어랩’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23년 첫선을 보인 주니어랩은 IT 기술 기업의 역량을 심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주니어랩 4기’는 카카오 T 택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택시기사의 중학생 자녀 및 손자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모빌리티 코딩 실습, 현업 개발자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이 진행된다.

◆기술로 실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택시 운임 자동 결제로 승객과 택시 종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원 낭비도 줄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국내 최초로 택시 운임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영수증을 대체했다. 카드나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사와 승객 사이 실랑이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종이 낭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영수증 감열지 구매와 발급 비용을 절감해 택시기사·사업자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했다.

카카오 T 바이크 운영을 통해서도 나무 375만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성과를 이뤘다. 또 ‘기브서들’ 캠페인을 추진해 자원봉사와 여행이 결합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든 ESG 활동은 ‘201 캠페인’이라는 통합 브랜드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프로젝트 두), ‘0’은 소외 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프로젝트 제로), ‘1’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행동 실천(프로젝트 원)을 의미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01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사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과정은 대중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조타 장례식 불참 디아스, 파티 참석해 ‘댄스’... 팬들 분노
▲2025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 무주 태권도원에서 11일 개막 /사진 뉴시스

▲제50회 전국기계체조대회 성료...양학선, 남자 일반 도마 우승
▲손흥민 대체자로 지목된 쿠두스...토트넘·웨스트햄 간 협상 계속

▲역도 김하준, 아시아유소년선수권대회서 용상 은메달 획득
▲근대5종 성승민, ‘장애물 시대’ 월드컵 파이널서 은메달